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light pink color with a large, stylized graphic of overlapping, wavy bands in various shades of pink and magenta,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농업·농촌경제동향

2014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jiyunpark@krei.re.kr/심민희 min2727@krei.re.kr

채상현 csh0331@krei.re.kr/)

연락처: 02-3299-4363 / 팩스: 02-964-5631

목 차

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2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산물 물가지수	15
2. 농림어업 취업자	20
3. 농축수산물 수출입	21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9
2. 엽근채소	33
3. 양념채소	39
4. 과일	49
5. 과채	57
6. 축산	64

특별 주제 1. 양곡표시사항 개정	73
2. 귀농·귀촌과 농촌 사회·경제의 변화	81

【요약】

I. 국내경제 동향

- 2014년 4/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2.7% 각각 증가함. 2014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3.3% 증가함.
- 2014년 4/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0.5% 증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함.
- 2014년 4/4분기 총수출은 LCD, 선박 등이 줄어 전기 대비 0.3% 감소,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함.
- 2014년 12월 취업자는 25,38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22천명 증가함.
- 2014년 12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통신기기·컴퓨터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2.2% 증가, 전년 동월대비 4.5% 증가함.
- 2014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 (실질로는 1.6% 증가)함.
- 2014년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3.9로 전분기 대비 1.5% 하락, 전년 동기대비 1.3% 하락함.
- 2014년 11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 대비 1.8% 증가 (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MMF 및 2년미만 정기예적금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1.4% 증가함.
- 2014년 4/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89원으로 전월말 종가인 1,109원 보다 20원 하락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4년 4/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7.1로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함.
- 2014년 4/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고추(화건), 마늘(난지), 양파 등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임.
- 2014년 4/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5.8로 전년 동기대비 1.0%, 전분기 대비 2.3% 하락함.
- 2014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3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하였고, 전분기 대비 13.0% 감소함.
- 2014년 1~12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61억 8,900만 달러임.
- 2014년 1~12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16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양곡표시사항 개정

- 쌀 의무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이 강화되고 적발건수가 증가하였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요구가 커짐.
- 따라서 쌀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국내외산 쌀의 혼합 유통 및 판매 금지와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률이 개정됨.

- 현재 수입쌀 부정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이중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보호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시키도록 일부 개정됨.
-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개정을 통해 쌀의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쌀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귀농·귀촌과 농촌 사회·경제의 변화

-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2013년 32,424가구로 37배 증가함. 귀농·귀촌이 활발한 지역은 지자체의 귀농·귀촌 노력이 활발한 지역인 경우가 많음.
- 귀농·귀촌이 활발한 지역은 지자체의 귀농·귀촌 노력이 활발한 지역인 경우가 많음. 지자체의 노력은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전국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귀농·귀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귀농·귀촌 동기에 대해서는 농촌이 좋아서, 도시생활이 싫어서, 영농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귀농·귀촌지 결정에서 자연환경과 농업여건, 주거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귀농·귀촌자의 애로사항을 경제적인 측면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수입의 감소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귀농·귀촌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인구 사회 구조 속에서 큰 틀이 결정되고, 여

기에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입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하며, 그것이 개인의 행태와 연령별 특성에 기초하는 개인의사결정요인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귀농·귀촌인 수는 경제상황과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성장률과 반비례 관계임.
 - 도시 압출 요인은 교통 혼잡이나 밀집 등 열악한 도시 환경에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요인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지만 한 개인이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함.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0년을 기점으로, 동부에서 읍면부로 전입하는 인구(향촌이도)가 읍면부에서 동부로 전입하는 인구(향촌이도)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향촌이도의 인구이동은 귀농·귀촌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 귀농·귀촌은 농업인구 고령화를 완화시킴. 귀농·귀촌인이 규모화된 전업농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노동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과수·특작 지대에서는 귀농인이 지역농업의 후계인력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귀농·귀촌인들이 초기에 지출하는 자금 대부분 지역 내에 순환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됨.
 -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도 기여함.
 - 귀농·귀촌은 농촌사회를 혼주화된 열린 사회로 바꾸는데 기여할 것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거주와 그들이 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 이로 인한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는 농촌 사회를 보다 유연하며 열린 사회로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발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인이 가지는 기획력, 정보화 능력, 조직력, 외부와의 교류 능력은 지방 행정에도 도움이 됨.

I. 국내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 2014년 4/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2.7% 각각 증가함. 2014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3.3%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1차 금속,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3% 감소함.
 -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이 감소하였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0.7% 증가함.
- 2014년 4/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0.5% 증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함.
- 2014년 4/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부진하여 전기 대비 9.2%,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함.
- 2014년 4/4분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5.6%,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함.
- 2014년 4/4분기 총수출은 LCD, 선박 등이 줄어 전기 대비 0.3% 감소,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하였고, 총수입은 원유,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6% 감소, 전년 동기대비 0.8% 감소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부연구위원(jiyeunpark@krei.re.kr), 심민희 연구원(min2727@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p					2014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 D P 성장률	3.0	2.1	2.7	3.4	3.7	3.3	3.9	3.5	3.2	2.7
최종소비지출	2.2	1.6	2.4	2.3	2.4	2.0	2.6	1.5	2.0	1.8
(민 간)	2.0	1.7	2.1	2.1	2.2	1.7	2.5	1.5	1.5	1.4
총고정자본형성	4.2	-2.6	5.0	5.9	7.8	3.3	5.9	3.4	3.6	0.9
(건 설)	6.7	1.9	9.8	8.8	5.4	1.1	4.3	0.2	2.6	-1.8
(설 비)	-1.5	-12.7	-3.9	1.5	10.9	5.9	7.3	7.7	4.3	4.2
총 수 출	4.3	5.6	5.9	2.6	3.2	2.8	4.5	3.7	2.5	0.8
총 수 입	1.6	-0.6	1.4	0.6	4.9	2.0	3.5	2.7	2.7	-0.8

주: 2013p, 2014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연간 GDP 성장률은 3.4%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유가 하락,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확대되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개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및 토목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경제성장 전망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4			2015 ^{e)}			2016 ^{e)}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 D P	3.7	3.0	3.3	3.0	3.7	3.4	3.7
민 간 소 비	2.0	1.4	1.7	2.3	2.8	2.6	2.9
설 비 투 자	7.5	4.3	5.9	7.0	5.0	6.0	5.7
건 설 투 자	1.9	0.4	1.1	2.7	3.8	3.3	2.3
상 품 수 출	3.7	0.5	2.1	-0.2	7.0	3.4	3.9
상 품 수 입	2.3	0.1	1.2	0.9	6.0	3.4	4.2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5.1.15.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 참고

2. 2014^{e)}, 2015^{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14년 4/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함. 실업률(계절조정)은 3.5%로 전년 동기보다 0.5%p 높은 수준이며,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함.
- 2014년 12월 취업자는 25,38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22천명 증가함.
- 12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5%로 전년 동월보다 0.4%p 높으며, 전월보다 0.3%p 증가함.
- 12월 산업별 취업자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5만2천명), 제조업(14만2천명), 숙박및음식점업(12만1천명), 도매및소매업(11만3천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9만4천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6만9천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5만5천명), 금융및보험업(-5만2천명) 등에서 감소함.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13	2014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5,873 61.5	25,945 61.3	26,767 63.1	26,810 63.0	26,622 62.4	26,536 62.4	2.6 -
취업자	25,066	24,913	25,790	25,927	25,767	25,599	2.1
· 농림어업	1,520	1,179	1,631	1,603	1,395	1,452	-4.5
· 광공업 (제조업)	4,200 4,184	4,294 4,279	4,334 4,319	4,360 4,346	4,384 4,374	4,343 4,330	3.4 3.5
· 건설업	1,754	1,683	1,813	1,833	1,854	1,796	2.4
실업자	807	1,031	977	884	854	937	16.1
실업률(계절조정)	-	3.5	3.7	3.5	3.5	-	-

자료: 통계청

【 고용 동향 변화 추이 】

단위: 천명, %(전년 동월대비)

	2013.12		2014. 11		2014. 12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경 제 활 동 인 구	25,736	2.4	26,786	2.1	26,270	2.1
취 업 자	24,962	2.3	25,968	1.7	25,384	1.7
(고 용 률)	(59.1)		(60.8)		(59.4)	
· 농 림 어 업	1,167	-2.3	1,506	-5.4	1,072	-8.1
· 광 공 업	4,281	2.0	4,365	2.3	4,416	3.1
(제 조 업)	4,264	2.0	4,355	2.4	4,406	3.3
· 건 설 업	1,755	0.3	1,874	4.7	1,838	4.7
· 도소매·음식숙박업	5,799	3.6	5,981	3.7	6,033	4.0
· 전기·운수·통신·금융	3,067	2.2	3,020	-1.2	3,025	-1.4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8,894	2.7	9,223	1.9	9,000	1.2
실 업 률	3.0		3.1		3.4	
(계 절 조 정)	(3.1)		(3.4)		(3.5)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4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5% 증가, 전년 동기대비로는 1.4% 증가함.
- 2014년 12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전월 대비 5.9%), 통신기기·컴퓨터등 내구재(전월 대비 3.2%)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2.2% 증가, 전년 동월대비 4.5% 증가함.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				2014			
	1/4	2/4	3/4	4/4	1/4	2/4	3/4	4/4p
소매 판매	0.3	1.2	0.7	1.2	2.5	0.7	1.4	1.9
(내구재) ¹	1.4	2.9	-1.4	-1.5	6.0	2.5	5.6	6.8
(준내구재) ²	2.7	1.6	2.9	1.0	-1.8	-2.4	0.8	0.5
(비내구재) ³	-1.4	0.2	0.7	2.8	2.7	1.3	-0.6	-0.2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4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실질로는 1.6% 증가)함.
 -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3.3%)이 증가하고, 임대소득 증가로 사업소득(1.2%), 7월부터 실시한 기초연금 영향으로 이전소득(4.9%) 등이 증가
- 2014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7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실질로는 1.9% 증가)함.
 - 교통(13.7%), 음식·숙박(5.2%), 기타상품·서비스(6.7%), 보건(6.1%) 등의 지출이 증가
 - 전년에 비해 덥지 않은 날씨로 연료비 지출이 감소한 주거·수도·광열(-0.8%)과 학원비 등의 지출이 감소한 교육비(-1.1%) 등이 감소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소 득	2.1	1.7	2.5	2.9	1.7	5.0	2.8	3.0
(정상소득)	2.3	2.1	3.0	2.8	1.7	4.4	2.9	3.0
(비정상소득)	-3.6	-8.5	-10.7	4.8	3.1	20.9	-0.4	2.2
소 비 지 출	0.9	-1.0	0.7	1.1	3.0	4.4	3.1	3.3
(식품·비주류음료)	-0.3	-1.6	1.1	-2.5	2.3	2.1	2.0	-0.9
(의류·신발)	2.2	4.8	0.5	0.9	2.6	-1.2	2.3	2.9
(교 통)	1.9	1.9	0.9	3.4	1.6	12.2	5.9	13.7
(교 육)	-1.8	-6.9	0.9	0.7	-0.2	2.6	0.5	-1.1
(음식·숙박)	2.6	-0.1	0.4	4.6	5.2	6.1	4.9	5.2

자료: 통계청

4. 물가

- 2014년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로 전분기 대비 0.5%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함.
-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0.8% 상승함.
 - 상품은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0.1% 하락함. 농축수산물물은 전월 대비 1.7%, 전년 동월대비 1.0% 상승함. 공업제품은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대비 0.6% 하락함.
 -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 1.5% 상승함.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지 수	107.7 (1.3)	108.8 (1.1)	109.1 (1.6)	109.4 (1.4)	108.9 (1.0)	109.0 (1.2)
상 품	110.1 (1.1)	111.3 (1.0)	111.4 (1.6)	111.4 (1.0)	110.3 (0.2)	111.1 (0.9)
농축수산물	111.9 (-0.6)	109.7 (-4.8)	109.1 (-2.2)	109.7 (-3.3)	107.1 (-0.3)	108.9 (-2.7)
공업 제품	108.8 (0.8)	110.4 (1.7)	110.6 (2.0)	110.5 (1.6)	109.7 (0.0)	110.3 (1.4)
서 비 스	105.8 (1.5)	106.8 (1.3)	107.4 (1.6)	107.8 (1.7)	107.8 (1.6)	107.4 (1.5)
집 세	111.2 (2.7)	112.9 (2.5)	113.6 (2.4)	114.1 (2.2)	114.7 (2.2)	113.8 (2.3)
공공서비스	100.8 (0.7)	101.6 (0.7)	101.6 (0.7)	101.5 (1.0)	101.5 (0.7)	101.5 (0.7)
개인서비스	106.5 (1.6)	107.4 (1.2)	108.2 (1.8)	108.9 (2.0)	108.7 (1.9)	108.3 (1.7)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07.8	107.8	107.9	109.1	108.8	108.8
상 품	110.1	110.1	110.2	110.6	110.2	110.1
농축수산물	109.2	106.2	106.8	107.1	106.1	107.9
공업 제품	109.4	109.9	109.9	110.0	109.8	109.2
서 비 스	106.0	106.0	106.2	107.8	107.7	107.8
집 세	112.0	112.2	112.5	114.5	114.7	115.0
공공서비스	100.7	100.7	100.9	101.5	101.5	101.5
개인서비스	106.8	106.6	106.7	108.8	108.6	108.6

자료: 통계청

- 2014년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3.9로 전분기 대비 1.5% 하락, 전년 동기대비 1.3% 하락함.
-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2로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대비 2.0% 하락함.
- 12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03.3으로 채소 및 과실이 올라 전월 대비 2.6% 상승함.
- 12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99.8로 석유·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1.6% 하락함.
 - 서비스는 전월 대비 보합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지 수	105.7 (-1.7)	105.7 (-0.5)	105.6 (-0.1)	105.5 (-0.2)	103.9 (-1.3)	105.2 (-0.5)
농림수산물	101.9 (-5.9)	104.2 (-1.3)	102.6 (1.7)	102.7 (-0.1)	100.7 (2.7)	102.5 (0.6)
광 산 품	108.2 (2.4)	110.4 (3.4)	110.4 (2.6)	109.7 (1.3)	111.2 (1.1)	110.5 (2.1)
공 산 품	105.3 (-3.0)	104.2 (-2.1)	103.8 (-1.5)	103.5 (-1.5)	101.1 (-3.2)	103.1 (-2.1)
전력/수도/가스	120.2 (5.7)	126.7 (6.9)	126.8 (5.7)	126.4 (5.1)	126.4 (3.6)	126.6 (5.3)
서 비 스	104.5 (0.3)	105.5 (1.3)	106.0 (1.6)	106.5 (1.7)	106.5 (1.5)	106.1 (1.5)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05.3	105.1	105.4	104.5	104.1	103.2
농림수산물	97.6	98.1	98.7	98.2	100.7	103.3
광 산 품	109.4	110.4	110.4	111.2	111.2	111.1
공 산 품	104.7	104.3	104.3	102.0	101.4	99.8
전력/수도/가스	120.6	121.5	123.9	126.5	126.4	126.3
서 비 스	104.9	104.9	105.0	106.5	106.5	106.5

자료: 한국은행

- 2014년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7.5로 전분기 대비 0.5% 상승, 전년 동기대비 3.5% 하락함.
- 12월 수출물가지수는 86.4로 원화환율 상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4%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4.3%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3.0% 하락, 전년 동월 대비 7.2% 하락함.
- 12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92.8로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는 0.8% 상승함.
- 12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6.4로 반도체·전자표시장치, 일반기계제품 등이 올랐으나 석유·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2.4%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4.3% 하락함.

【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지 수	93.7 (-4.3)	90.7 (-3.3)	87.2 (-8.7)	87.0 (-8.2)	87.5 (-3.5)	88.1 (-6.0)
농림수산물	97.6 (-12.5)	92.8 (-6.4)	90.1 (-10.9)	92.8 (-3.7)	92.1 (-1.9)	91.8 (-5.9)
농 산 물	152.3 (5.0)	152.7 (2.2)	151.6 (-3.7)	151.1 (-3.0)	136.5 (-6.7)	147.2 (-3.3)
수 산 물	83.2 (-19.3)	77.9 (-9.7)	75.1 (-12.9)	78.1 (-2.6)	79.6 (-0.6)	77.7 (-6.6)
공 산 품	93.7 (-4.2)	90.7 (-3.3)	87.2 (-8.7)	87.0 (-8.3)	87.5 (-3.5)	88.1 (-6.0)
화 학 제 품	107.4 (-3.8)	103.8 (-4.8)	99.3 (-8.6)	101.3 (-6.3)	96.6 (-7.0)	100.2 (-6.7)
제1차금속제품	89.8 (-10.7)	86.2 (-7.8)	83.4 (-9.2)	83.6 (-6.0)	85.3 (0.5)	84.6 (-5.8)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출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91.3	90.6	90.3	87.5	88.6	86.4
농림수산물	96.0	93.7	92.0	91.1	92.3	92.8
농 산 물	149.7	144.5	144.7	132.1	134.5	142.9
수 산 물	81.9	80.4	78.0	79.2	80.1	79.4
공 산 품	91.3	90.6	90.3	87.5	88.5	86.4
화 학 제 품	104.5	103.3	103.8	99.7	98.1	92.1
제1차금속제품	85.6	85.0	84.0	84.6	85.8	85.6

자료: 한국은행

- 2014년도 4/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89.9로 전분기 대비 4.4% 하락, 전년 동기대비 9.6% 하락함.
- 12월 수입물가지수는 86.6으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5.1% 하락, 전년 동월대비 13.0%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대비 15.4% 하락함.
 - 원재료의 경우,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1.6% 하락함.
 - 자본재는 전월 대비 보합세 유지, 소비재는 전월 대비 0.1% 상승함.
- 12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01.0으로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월대비 6.8% 상승함.

【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지 수	102.7 (-7.3)	99.7 (-4.1)	96.0 (-7.5)	94.1 (-9.1)	89.9 (-9.6)	94.9 (-7.6)
농림수산물	101.0 (-5.9)	98.9 (-4.1)	99.5 (-5.2)	97.1 (-3.5)	100.4 (5.1)	98.9 (-2.1)
농 산 물	100.6 (-9.5)	94.4 (-11.6)	92.9 (-12.0)	87.7 (-11.0)	90.9 (-0.7)	91.5 (-9.0)
축 산 물	110.9 (0.0)	115.4 (5.9)	118.7 (5.1)	122.6 (9.6)	127.3 (16.1)	120.9 (9.0)
광 산 품	120.5 (-7.7)	117.5 (-3.0)	113.4 (-6.1)	108.5 (-11.5)	93.6 (-20.1)	108.3 (-10.1)
공 산 품	95.3 (-7.1)	92.2 (-4.7)	88.6 (-8.4)	87.8 (-8.2)	87.6 (-5.0)	89.0 (-6.6)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입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3			2014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99.6	99.1	99.5	92.0	91.2	86.6
농림수산물	96.2	95.6	94.6	99.2	100.9	101.0
농 산 물	92.5	91.1	91.0	89.6	91.4	91.6
축 산 물	109.2	110.3	109.4	125.3	128.7	127.8
광 산 품	117.1	116.5	117.8	100.7	96.3	83.7
공 산 품	92.5	92.1	92.2	87.9	88.4	86.6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14년 11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 대비 1.8%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2.6% 증가).
- 2014년 11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MMF 및 2년미만 정기에 적금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1.4%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8.3% 증가).
 - 2년미만 금전신탁도 수시입출식 및 정기에금형 상품을 중심으로 확대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계절조정기준 1.3%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8.1% 증가), 광의유동성(L)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1.2%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말대비 8.7% 증가).

【 통화지표 증감률 (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 동월대비, %

	20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M1 ¹	10.9	9.8	10.1	9.1	10.0	9.3	9.2	11.9	11.8	12.1	12.6
M2 ²	5.2	5.2	5.5	5.5	6.0	6.1	6.5	7.6	7.1	7.5	8.3
Lf ³	6.7	6.4	6.4	6.2	6.6	6.7	6.9	7.3	7.1	7.3	8.1
본원통화 ⁴	14.8	13.2	12.4	12.7	13.5	11.2	11.6	14.9	10.7	14.4	13.9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4년 12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12월 하순 이후 물가상승률 둔화,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BCB의 국채매입 등 추가 완화정책 시행 가능성 등으로 하락
 - 회사채금리는 신용스프레드 축소에 대한 부담, 연말 기관투자자의 수요 감소 등으로 국고채금리보다 소폭 하락
 - 12월중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는 국부펀드 등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외국 은행 및 글로벌펀드 자금의 유출에 따라 소폭 순유출 전환
- CD(91일) 금리는 연말 MMF의 수신감소에 따른 매도 등으로 상승 후 반락

【 금 리 동 향 】

단위: %

	201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3년)	2.88	2.84	2.75	2.56	2.54	2.40	2.24	2.14	2.14
콜 금 리 ¹	2.49	2.49	2.48	2.49	2.34	2.24	2.07	1.98	1.99
CD유통수익률(91일)	2.65	2.65	2.65	2.65	2.52	2.35	2.21	2.14	2.13
회 사 채 ²	3.30	3.26	3.17	2.97	2.93	2.79	2.60	2.47	2.46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4/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89원으로 전월말 증가인 1,109원 보다 20원 하락함.
- 미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등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강화에 따른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 확대,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정책 시행에 따른 급격한 엔화 양세 등으로 12월 8일까지 상승하였다가 하락
- 2014년 4/4분기말 원/100엔 환율은 전월보다 28원 하락한 910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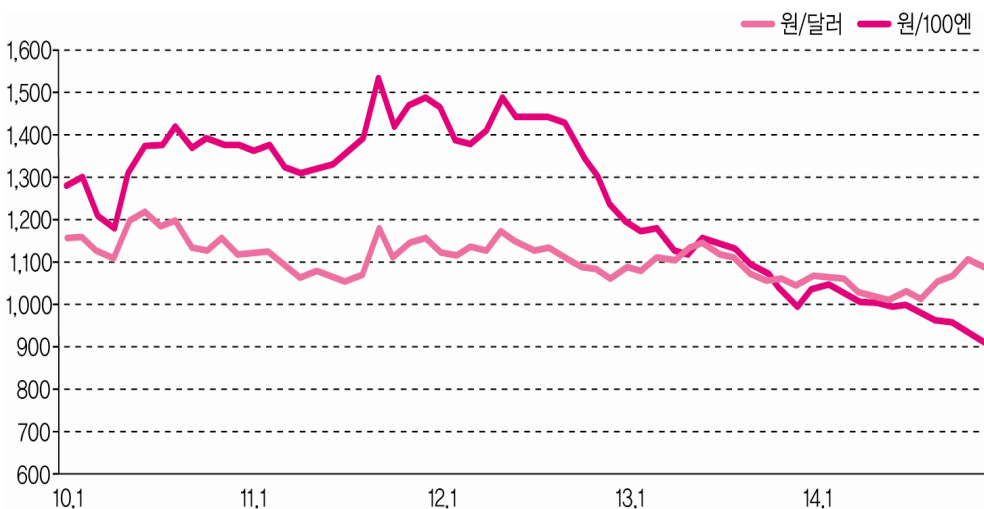
【 원화 환율 동향 】

	20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072	1,068	1,063	1,032	1,020	1,012	1,027	1,015	1,054	1,068	1,109	1,089
원/100엔	1,039	1,049	1,030	1,007	1,003	999	999	978	964	958	938	910

주: 기말 고시 환율 기준

자료: 외환은행

【 원화 환율 추세 】



II. 농촌경제 동향2)

1. 농산물 물가지수

1.1. 생산자물가지수

- 2014년 4/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7.1로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함.
- 과일류는 18.9% 하락한 반면, 채소류와 축산물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8%, 10.0% 상승함.
- 농업용품의 경우는 사료가 전년 동기대비 2.4% 하락한 반면, 비료 및 질소화합물이 4.1%, 농업용 기계가 5.3% 상승함.

【 농업분야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식료품	107.9	105.2	108.6	107.1	1.9	-1.4
식료품(이외)	105.5	105.3	105.3	103.7	-1.5	-1.5
곡류	133.9	133.2	127.3	127.4	-4.4	0.0
채소	93.3	81.7	82.4	86.4	5.8	4.9
과실	115.5	111.6	126.0	90.5	-18.9	-28.2
축산물	96.6	96.4	105.2	106.0	10.0	0.7
낙농	123.2	130.1	128.0	130.4	0.2	1.9
육가공품	86.8	86.3	97.4	97.4	12.9	0.0
과실 및 채소가공품	122.9	121.0	120.8	121.3	0.2	0.4
사료	117.8	117.2	114.7	114.4	-2.4	-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105.0	107.2	111.6	111.6	4.1	0.0
살충제 및 농약	101.3	101.3	103.5	103.5	2.2	0.0
농업용 기계	115.6	115.6	117.4	121.6	5.3	3.6

자료: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지연 부연구위원(jiyoungpark@krei.re.kr)과 채상현 연구원(csh0331@krei.re.kr)이 작성하였음.

1.2. 소비자물가지수

- 2014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0.4% 하락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은 전분기 대비 2.4% 하락함.
- 농산물의 경우, 곡물은 전분기 대비 0.6% 상승한 반면 채소와 과실은 전분기
대비 각각 5.1%, 8.3% 하락함. 축산물은 전분기 대비 1.8% 하락함.

【 농업분야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소비자물가	107.9	107.8	109.4	108.9	1.0	-0.4
농축수산물	113.5	107.4	109.7	107.1	-0.3	-2.4
농산물	117.4	107.3	105.1	100.8	-6.0	-4.1
곡물	127.7	127.6	122.3	123.1	-3.5	0.6
채소	102.5	86.6	87.0	82.6	-4.6	-5.1
과실	121.3	112.9	109.4	100.4	-11.1	-8.3
기타농산물	142.7	134.6	131.5	140.4	4.3	6.8
축산물	105.8	104.2	114.0	112.0	7.5	-1.8
수산물	112.4	111.9	114.2	116.6	4.2	2.1

자료: 통계청

1.3.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 2014년 4/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고추(화건), 마늘(난
지), 양파 등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임.

【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33.0	131.2	127.5	124.5	-5.1	-2.3
콩(백태)	129.1	107.0	83.1	81.3	-24.1	-2.2
배추	101.1	51.0	68.2	40.7	-20.1	-40.3
무	82.1	54.3	59.5	54.1	-0.4	-9.1
고추(화건)	115.3	106.3	121.3	133.2	25.3	9.8
마늘(난지)	59.8	62.8	76.2	77.0	22.6	1.0
양파	94.7	105.4	55.2	58.4	-44.6	5.7
사과(후지)	114.8	119.8	152.9	93.3	-22.1	-39.0
배(신고)	150.9	109.0	187.5	87.9	-19.3	-53.1
느타리	122.2	104.8	117.2	100.8	-3.8	-14.0
참깨	114.4	103.6	104.1	101.5	-2.1	-2.5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1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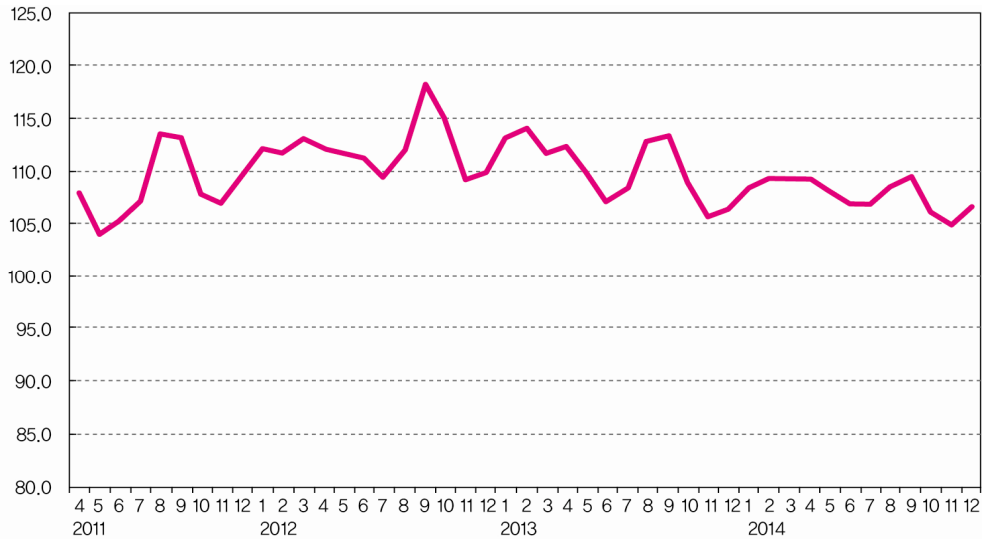
- 2014년 4/4분기 곡물 가격 중 쌀은 전분기보다 2.3%, 콩(백태)은 전분기보다 2.2% 하락함.
- 2014년 4/4분기 채소 가격은 배추와 무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고추(화건), 마늘(난지), 양파 등의 품목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4년 4/4분기 과일 가격은 사과(후지)는 전분기보다 39.0%, 배(신고)는 전분기보다 53.1% 하락함.

1.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³⁾

- 2014년 4/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5.8로 전년 동기대비 1.0%, 전분기 대비 2.3% 하락함.
 - 쌀, 쇠고기, 닭고기, 오이, 양파, 마늘 등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돼지고기, 사과, 배추, 무, 당근, 파 등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함.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된 물가지수임.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



【 주요 농산물 생활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28.8	129.2	125.2	126.5	-2.1	1.0
쇠고기(국산)	89.2	91.0	96.1	97.5	7.1	1.4
돼지고기	115.0	106.2	128.5	119.4	12.4	-7.1
닭고기	109.8	109.2	99.0	103.0	-5.6	4.0
사과	139.4	124.8	122.7	114.6	-8.2	-6.6
딸기	83.6	83.6	87.1	87.1	4.2	0.0
배추	113.8	58.5	80.7	45.9	-21.5	-43.1
무	80.2	54.7	56.9	51.1	-6.5	-10.3
당근	110.0	119.0	129.6	110.7	-7.0	-14.6
오이	96.2	100.1	84.2	98.1	-1.9	16.6
파	70.9	68.5	60.4	58.4	-14.7	-3.3
양파	114.0	116.0	74.9	75.2	-35.2	0.3
마늘	96.8	90.6	88.8	92.1	1.7	3.7

자료: 통계청

1.5.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

- 2014년 4/4분기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96.3으로 전년 동기대비 4.9%, 전분기 대비 4.3% 하락함.
- 신선채소는 배추, 무, 버섯 등의 품목 하락으로 인하여 전분기 대비 5.7% 하락함.
- 신선과실은 사과, 배, 바나나 등 품목의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8.3% 하락함.

【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3		2014		등락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신선식품	111.4	101.3	100.7	96.3	-4.9	-4.3
신선어개	109.4	108.6	110.5	113.9	4.9	3.1
신선채소	102.9	86.2	86.5	81.6	-5.4	-5.7
배추	113.8	58.5	80.7	45.9	-21.5	-43.1
무	80.2	54.7	56.9	51.1	-6.5	-10.3
버섯	110.5	109.9	115.3	113.4	3.2	-1.6
오이	96.2	100.1	84.2	98.1	-1.9	16.6
꽃고추	90.7	76.0	91.2	103.6	36.3	13.6
호박	85.2	75.6	66.3	82.8	9.4	24.8
토마토	93.9	101.0	67.5	85.3	-15.5	26.4
양파	114.0	116.0	74.9	75.2	-35.2	0.3
신선과실	121.3	112.9	109.4	100.4	-11.1	-8.3
사과	139.4	124.8	122.7	114.6	-8.2	-6.6
배	168.8	119.8	123.2	99.0	-17.4	-19.6
오렌지	80.3	80.3	96.9	96.9	20.7	0.0
바나나	123.3	109.9	129.8	117.3	6.8	-9.6
기타신선	98.6	90.0	92.3	93.2	3.5	0.9

자료: 통계청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4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3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하였고, 전분기 대비 13.0%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5.6% 감소한 80만 8천 명이었고, 여성은 9.4% 감소한 58만 7천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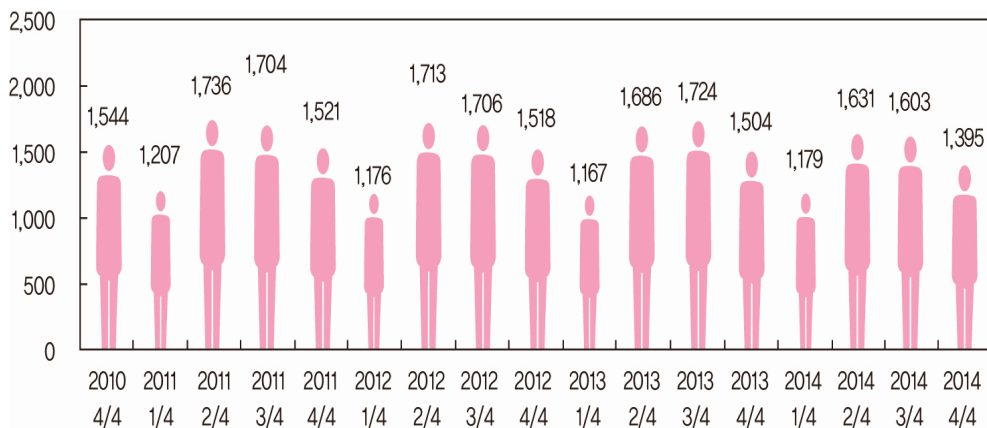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3		2014		증감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5,410	25,346	25,927	25,767	1.7	-0.6
	(계절조정)	(25,163)	(25,296)	(25,669)	(25,721)	(1.7)	(0.2)
	농림어업	1,724	1,504	1,603	1,395	-7.2	-13.0
	(계절조정)	(1,550)	(1,510)	(1,440)	(1,401)	(-7.2)	(-2.7)
	남성	960	856	904	808	-5.6	-10.6
	여성	764	648	699	587	-9.4	-16.0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 2014년 4/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는 1~17시간 취업자수와 18~35시간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여 전체적인 취업자수도 7.2% 감소하였음.
- 일시 휴직자는 2만 1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하였고, 주당 평균 시간은 35.8시간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함.

【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3		2014		증감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전체	1,724	1,504	1,603	1,395	-7.2	-13.0
1~17시간	109	156	82	160	2.6	95.1
18~35시간	393	369	350	394	6.8	12.6
36시간 이상	1,205	959	1,152	820	-14.5	-28.8
일시 휴직	17	19	20	21	10.5	5.0
주당 평균시간	40.0	37.6	40.2	35.8	-4.8	-10.9

자료: 통계청

3. 농축수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4년 1~12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지속되는 엔저와 각 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딸기, 배, 단감, 인삼 등의 신선농산물의 수출량 증가와 고추장, 과자류, 조제분유 등의 가공식품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61억 8,500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딸기, 배, 단감, 인삼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가금육류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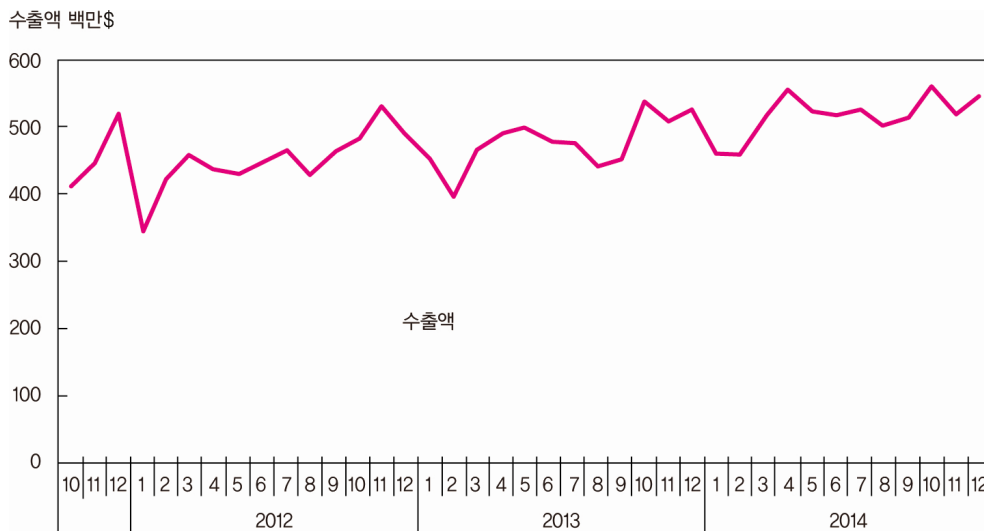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12		2014. 1~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336	5,725	3,606	6,185	8.1	8.1
농 산 물	2,566	4,741	2,800	5,227	9.1	10.3
축 산 물	127	436	113	470	-11.0	7.8
임 산 물	643	548	693	489	7.8	-10.8
수 산 물	687	2,151	702	2,067	2.1	-3.9
전 체	4,023	7,876	4,308	8,253	7.1	4.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딸기, 감,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5%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2. 수입 동향

- 2014년 1~12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16억 3,100만 달러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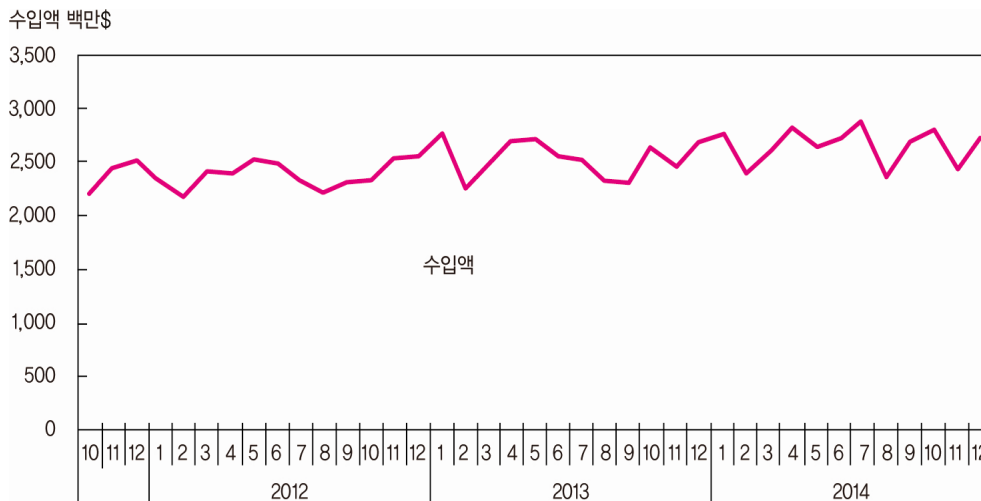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12		2014. 1~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7,169	30,299	48,059	31,631	1.9	4.4
농 산 물	31,784	19,106	32,496	19,304	2.2	1.0
축 산 물	1,209	4,688	1,357	5,622	12.3	19.9
임 산 물	14,176	6,506	14,205	6,705	0.2	3.1
수 산 물	5,386	3,893	5,231	4,505	-2.9	15.7
전 체	52,555	34,193	53,290	36,136	1.4	5.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1.6%, 전월 대비 12.2%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 국가별 수출입 동향

3.3.1.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12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축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한 9억 8,800만 달러임.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12		2014. 1~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757.8	947.5	807.6	988.0	6.6	4.3
농 산 물	382.7	675.0	374.8	708.5	-2.1	5.0
축 산 물	32.3	145.1	34.2	172.2	5.8	18.7
임 산 물	342.8	127.4	398.6	107.2	16.3	-15.8
수 산 물	143.2	370.4	119.5	309.3	-16.5	-16.5
전 체	901.0	1,317.9	927.1	1,297.3	2.9	-1.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곡류 수출액은 전년대비 48.5%, 과일류는 17.9%, 낙농품은 36.8%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만 달러

구 분	2013. 1~12		2014. 1~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1,891	2,108	2,099	3,131	11.0	48.5
과실류	30,011	51,299	34,862	60,473	16.2	17.9
채소류	1,639	11,904	1,138	11,279	-30.6	-5.3
화훼류	1,590	10,992	783	6,959	-50.7	-36.7
버섯류	188	321	22	49	-88.2	-84.8
낙농품	11,594	71,467	16,265	97,782	40.3	36.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1~12월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농산물 수입은 감소한 반면 축산물과 임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3. 1~12		2014. 1~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6,800	4,713	6,404	4,784	-5.8	1.5
농 산 물	3,699	2,747	3,251	2,659	-12.1	-3.2
축 산 물	26	142	35	163	36.7	15.5
임 산 물	3,076	1,825	3,118	1,962	1.4	7.5
수 산 물	907	1,026	904	1,174	-0.3	14.5
전 체	7,707	5,739	7,308	5,959	-5.2	3.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2.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12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여 13억 1,685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12		2014. 1~12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888,721	1,286,557	937,732	1,316,850	5.5	2.4
곡류	9,711	7,739	10,837	7,652	11.6	-1.1
과실류	9,252	23,269	7,411	20,844	-19.9	-10.4
채소류	50,720	184,694	57,620	170,599	13.6	-7.6
화훼류	5,819	44,991	3,924	27,767	-32.6	-38.3
버섯류	568	1,901	548	1,754	-3.4	-7.7
낙농품	2,975	13,633	2,781	14,558	-6.6	6.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과실류는 감귤, 유자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10.4% 감소함.
 - 채소류는 배추, 김치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7.6% 감소함.
 - 화훼류는 장미, 백합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38.3% 감소함.
- 2014년 1~12월 일본으로 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축산물과 임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12		2014. 1~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546,549	458,977	689,479	481,757	26.2	5.0
농 산 물	74,041	290,606	77,890	277,890	5.2	-4.4
축 산 물	38,438	52,507	39,341	53,612	2.4	2.1
임 산 물	434,071	115,864	572,248	150,256	31.8	29.7
수 산 물	53,386	106,223	33,134	101,878	-37.9	-4.1
전 체	599,935	565,200	722,613	583,635	20.5	3.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3.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12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5억 9,436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함. 이는 미국의 저칼로리·저염·글루텐프리(Gluten free) 등 웰빙 간식 선호 증가로 과자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 채소류는 딸기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배추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13.8% 감소함.
- 과실류는 사과, 배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함.
- 버섯류는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3.0%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12		2014. 1~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02,450	522,671	226,231	594,362	11.7	13.7
곡류	5,489	5,776	5,489	5,913	0.0	2.4
과실류	16,832	37,124	15,397	40,009	-8.5	7.8
채소류	4,946	27,456	5,198	23,662	5.1	-13.8
화훼류	150	2,049	189	2,354	26.2	14.9
버섯류	3,789	7,398	3,847	8,363	1.5	13.0
낙농품	4,611	4,911	4,388	5,341	-4.8	8.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1~12월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임산물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농산물,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30.8%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3. 1~12		2014. 1~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6,395,277	5,941,717	11,638,144	7,773,613	82.0	30.8
농 산 물	4,451,937	3,624,752	9,903,598	5,065,656	122.5	39.8
축 산 물	391,522	1,470,937	448,451	1,878,051	14.5	27.7
임 산 물	1,551,818	846,028	1,286,095	829,906	-17.1	-1.9
수 산 물	63,578	221,369	71,703	237,386	12.8	7.2
전 체	6,458,855	6,163,086	11,709,847	8,010,999	81.3	3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4.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4년 1~12월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한 3억 2,266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함.
-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0% 증가함.

【 대EU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

단위: kg, 달러

구 분	2013. 1~12		2014. 1~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66,386	299,329	170,666	322,658	2.6	7.8
농 산 물	161,337	276,950	164,671	297,023	2.1	7.3
곡류	305	658	338	798	10.8	21.3
과실류	6,551	6,931	10,057	9,649	53.5	39.2
채소류	1,199	7,176	1,420	7,636	18.5	6.4
화훼류	217	1,813	217	1,803	0.3	-0.6
버섯류	1,625	7,295	1,791	7,007	10.2	-4.0
축 산 물	575	13,753	468	15,891	-18.6	15.6
낙농품	26,698	116,000	0,126	0,422	-99.5	-99.6
임 산 물	4,473	8,626	5,527	9,745	23.6	13.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4년 1~12월 EU로 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농산물 수입액은 감소한 반면 축산물 수입액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한 34억 7,840만 달러임.

【 대EU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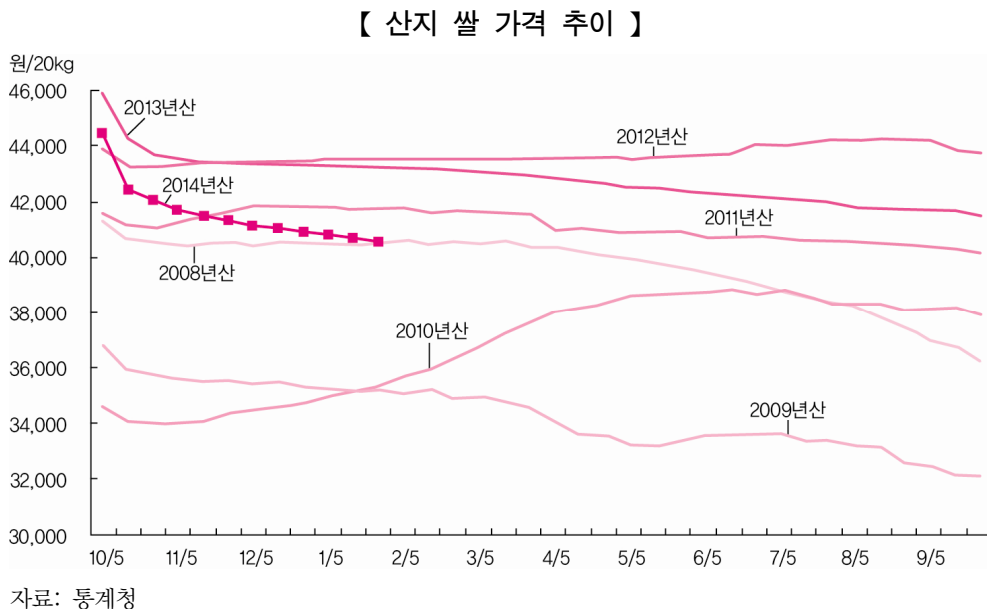
구 분	2013. 1~12		2014. 1~12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691.4	3,218.7	1,817.3	3,478.4	-32.5	8.1
농 산 물	1,890.1	1,870.1	975.4	1,740.7	-48.4	-6.9
축 산 물	216.5	937.4	305.8	1,304.5	41.2	39.2
임 산 물	584.7	411.2	536.1	433.2	-8.3	5.3
수 산 물	22.7	115.1	25.3	133.0	11.4	15.5
전 체	2,714.1	3,333.8	1,842.6	3,611.3	-32.1	8.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⁴⁾

1.1. 쌀



● 2014년 4/4분기 동향

-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증가하여 2014년산 쌀 생산량은 424만 1천 톤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함.
- 지난해 단경기 가격하락과 대풍으로 농가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 수확기 출하량이 증가하고 보유물량은 감소함.
- 12월 31일 기준, 산지유통업체들의 2014년산 벼 매입량은 204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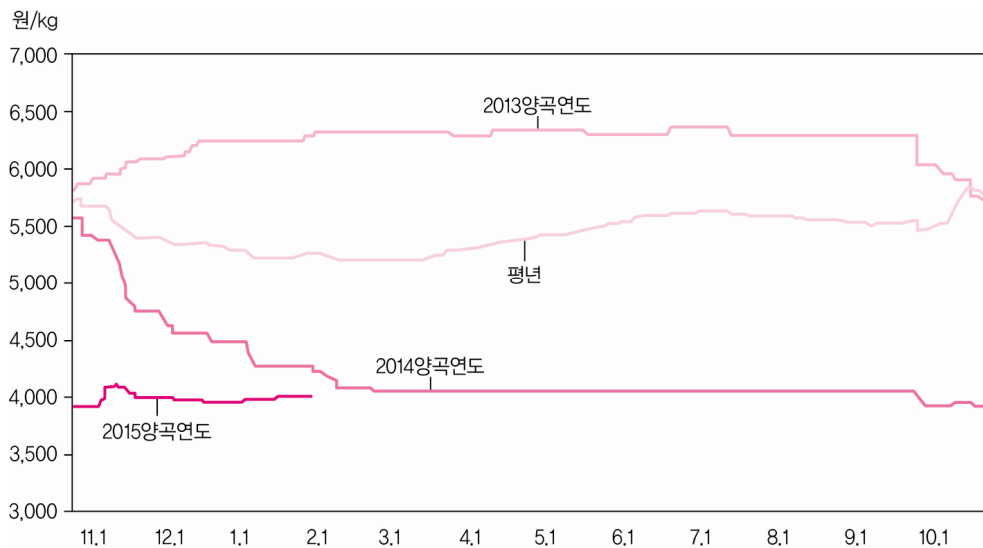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연구위원(taehun@krei.re.kr), 김종진 부연구위원(jkim@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공민지(kmj@krei.re.kr), 손미연(sonmy@krei.re.kr), 이동주(djlee@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은 전년대비 4.5% 하락하였으며, 2015년 1월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폭 하락세 지속됨.
- 2015년 1월 평균 산지 쌀값은 4만 688원으로 전년대비 5.9% 하락함.
- 유통업체의 수확기 벼 매입량 증가로 1/4분기 쌀값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에서 1월 시세의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1.2. 콩

【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국산 콩의 12월 평균 도매가격은 3,973원/kg으로 전년대비 13.52%, 평년대비 25.83% 하락함.
- 12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 콩 단수는 전년대비 3.1% 감소한 187kg/ha로 전망되었으며, 콩 재배면적 또한 전년대비 6.7% 감소하여 2014년산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9.6% 감소한 13만 9,267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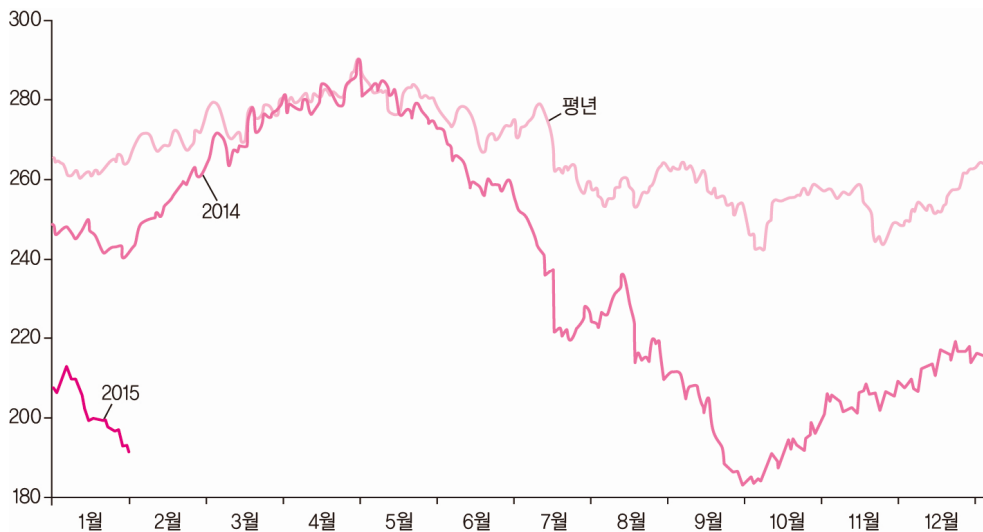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콩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2013년산 재고가 모두 소진되지 않아 수확기(11월~1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전년 수확기대비 9~17%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국산 콩의 1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8.26%감소한 3,977원/kg으로 전월대비 0.1% 상승함.
-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에 한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국산 콩 소비 촉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음.

1.3. 국제곡물

【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

단위: 2000년 1월 = 100



주 1)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쌀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Rough rice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4년 4/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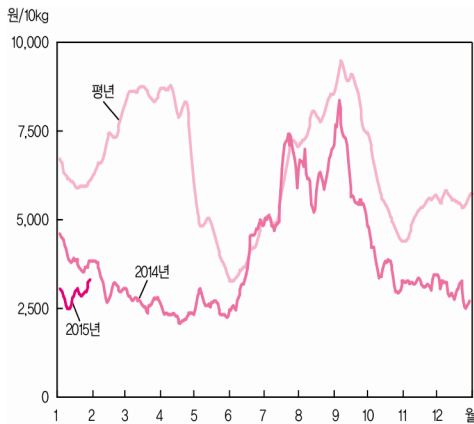
-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밀, 옥수수, 콩, 쌀)은 밀과 옥수수의 가격 상승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 분기보다 생산량 및 재고량 전망치 상향 조정, 유가 하락,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5.8% 하락함.

- 밀은 미국 북부 밀 재배지역 한파에 의한 동결 피해 우려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제한 정책 논의(검역 강화 및 수출세 부과)의 영향,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전 분기 대비 5.2% 상승함.
 - 옥수수는 밀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곡물 수출 제한 정책 논의, 달러화 강세 등의 요인으로 전 분기 대비 3.5% 상승함.
 - 콩은 남미 단수 및 생산량 증가 전망, 농가 출하로 인한 공급량 증가, 대두유 수요 감소, 미국산 대두박 가격하락 등의 요인으로 전 분기 대비 12.3% 하락함.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4분기 주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밀, 옥수수, 콩, 쌀의 교역량 기준 가중평균)은 전 분기 대비 0.4% 하락한 203.1로 전망됨.
 - 흑해지역(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규제, 남미지역 가뭄 지속 등의 상승요인과 유가하락, 달러화 강세, 역대 최대 생산량 및 재고량 전망 유지 등 하락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으로 2015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안정세(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밀 선물가격은 흑해지역의 수출 규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중국의 생산량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풍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1/4분기 옥수수 선물가격은 남미지역의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전 분기 대비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유가 하락에 따른 에탄올 수요 감소(산업용 옥수수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가격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남미지역의 가뭄 지속 등의 상승요인과 대두박 및 대두유 가격 하락(가공용 콩 수요 감소)과 같은 하락 요인이 혼재된 상황으로 2015년 1/4분기 콩 선물가격은 전 분기와 비슷(0.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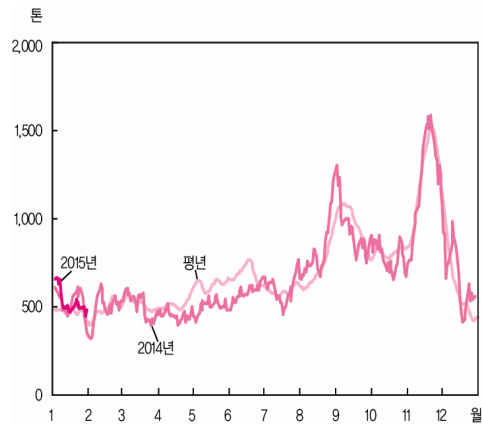
2. 엽근채소⁵⁾

2.1. 배 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 】



【 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가을 및 겨울배추 출하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29%, 40% 낮았음.
- 가을철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가을 및 겨울배추 단수가 증가하면서 10~12월 산지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크게 많았음. 따라서 10~12월 가격은 작년이나 평년 대비 약세가 지속되었음.

* (2014) 3,279원/10kg, (2013) 4,643원, (평년) 5,425원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 겨울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10% 많고 평년보다는 13% 많을 것으로 전망됨.
- *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 증가한 3,990ha, 단수는 작년보다 7% 증가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최병옥 연구위원(bochoi@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한 9,677kg/10a으로 추정되어 2014년 겨울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10%, 평년보다 13% 증가 전망

- 2015년 1/4분기 배추 도매가격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됨.

* 2015년 1월 정부에서 겨울배추 가격 약세를 우려하여 약 4만톤 시장격리를 진행하고 있어, 격리물량에 따라 가격은 변동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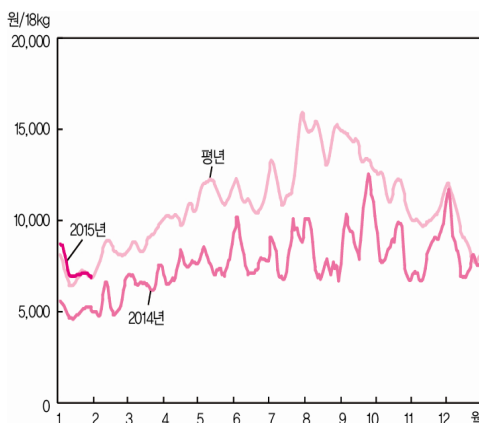
● 2015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11.20), 2015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낮은 시세에 따른 타 작목 전환 등으로 2014년보다 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봄배추가 2014년보다 각각 10%,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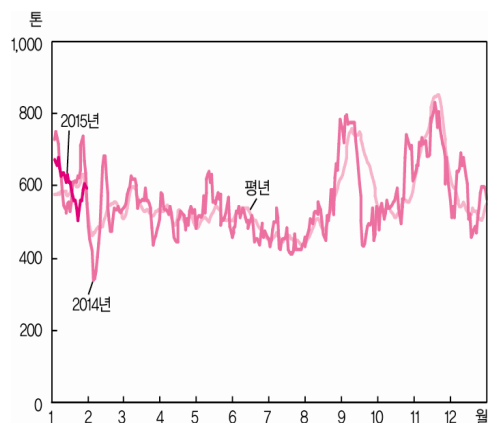
* 시설봄배추 대체작목은 풋고추, 수박 등이며 노지봄배추는 콩, 옥수수 등으로 나타남. 그러나 아직 재배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향후 겨울배추 출하기 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클 전망

2.2. 무

【 무 도매가격 동향 】



【 무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3% 높지만 평년보다는 16% 낮았음.
- 가격이 크게 낮았던 2013년 4/4분기보다는 다소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가을 및 월동무 재배면적이 감소했지만 소비 감소와 채소류 가격 약세로 평년보다 낮은 약세 지속됨.

* (10월) 8,365원/18kg, (11월) 8,199원, (12월) 8,385원

* (2014 4/4분기) 8,316원/18kg, (2013 4/4분기) 8,037원, (평년 4/4분기) 9,930원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산 월동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7% 적지만 평년보다는 4%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월동무 재배면적은 4,189ha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1% 감소, 단수는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 5% 증가한 6,586kg/10a으로 추정되어 생산량은 전년보다 7% 적지만 평년보다는 4% 많을 전망

- 2015년 1/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높고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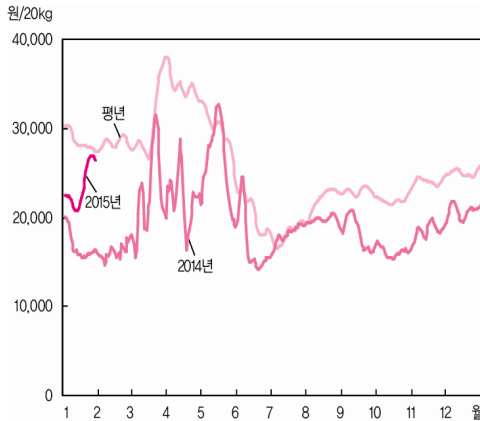
● 2015년 봄무 재배의향면적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5년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2014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봄무가 2014년보다 각각 4%,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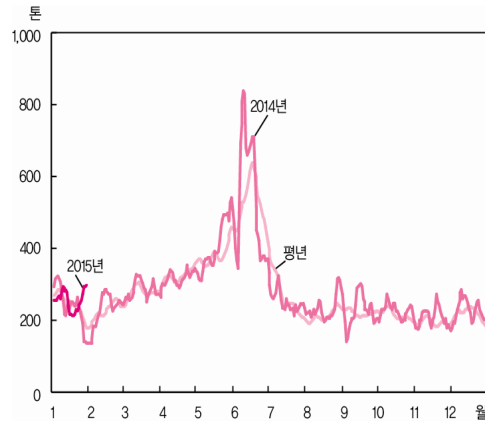
* 봄무 재배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월동무 출하 가격 등에 따라 재배면적이 변동할 것으로 전망됨.

2.3. 감자

【 수미 도매가격 추이 】



【 대지 도매가격 추이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봄과 고랭지감자 저장 출하 지연으로 작년과 비슷하지만 평년 동기보다는 27% 낮았음.

* (2014) 18,446원/20kg, (2013) 18,223원, (평년) 25,381원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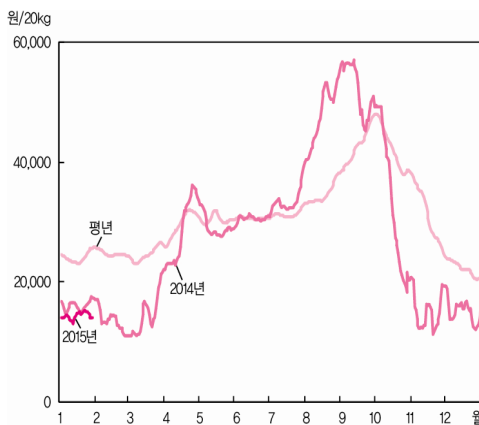
- 내륙지역(김제, 영광, 밀양 등) 가을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대와 평년보다 각각 23%, 59% 감소한 약 5천 톤으로 전망
- 제주도 가을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대와 평년보다 각각 16%, 46% 감소한 1만 3천 톤으로 전망
- 1/4분기 수미, 대지감자 도매가격은 저장감자가 많지만 가을감자 출하량 감소로 전년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저장감자 증가로 전반적인 가격은 평년보다 낮지만 햇감자 시세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봄감자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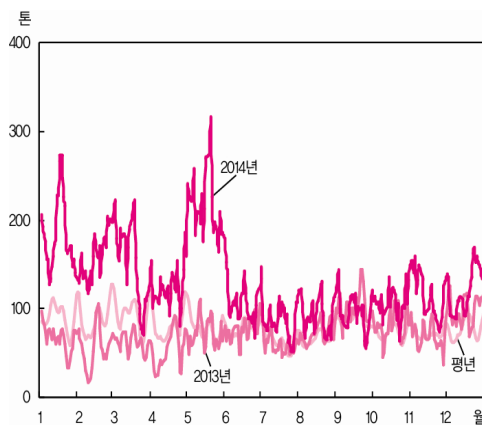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5년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2014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봄감자가 2014년보다 각각 6%,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4. 당 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 】



【 당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도매가격은 가을과 겨울당근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임.
- 10월 이후 가을당근의 본격적인 출하와 겨울당근의 이른 출하가 이어지면서 점차적인 하락세를 보임.
- 4/4분기 당근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만 1,043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24%, 35%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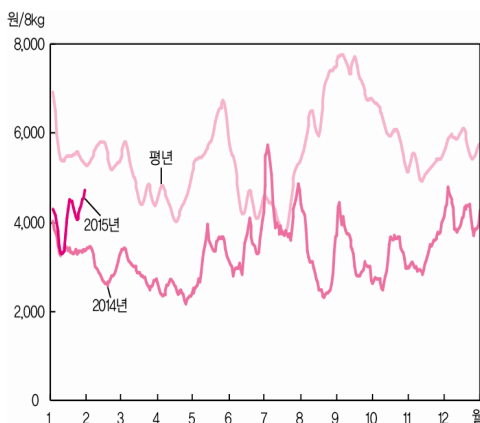
* (2014년) 21,043원/20kg, (2013년) 27,806원/20kg, (평년) 32,564원/20kg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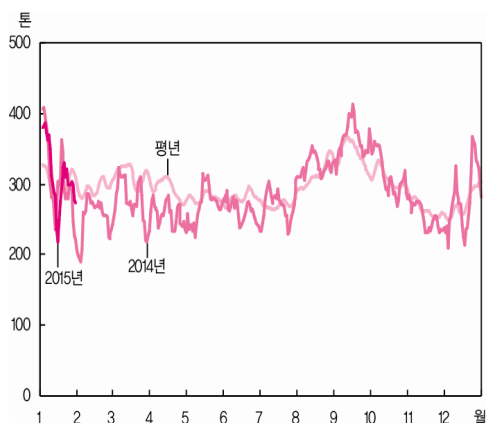
- 2014년산 겨울당근 생산량이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0%,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1만 5천 원~2만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산 겨울당근 저장을 작년보다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가격은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2.5. 양 배 추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



【 양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도매가격은 고랭지와 가을 및 겨울양배추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임.
- 고랭지양배추 출하가 10월 중순까지 지속되고, 10월 중순 이후 가을양배추의 출하로 출하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해 하락세를 지속함.
- 4/4분기 양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3,523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8%, 37% 낮은 수준임.

* (2014년) 3,523원/8kg, (2013년) 3,814원/8kg, (평년) 5,623원/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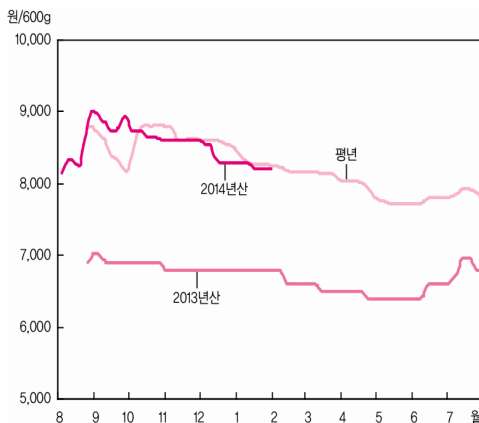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이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1%, 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겨울양배추 수급안정대책으로 1만 9천 톤을 시장격리 할 계획이어서 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3,000~4,000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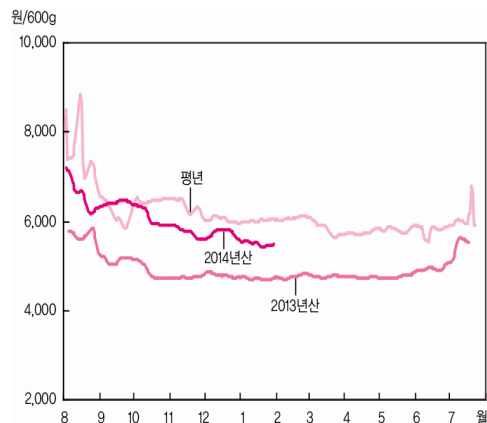
3. 양념채소⁶⁾

3.1. 건고추

【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



주1: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2: 평년 도매가격은 2009년 8월~2014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도매가격은 햇 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 2014년 4/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4/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5% 높은 8,56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22% 높은 5,860원 수준이었음.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국승용 연구위원(gouksy@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 도매가격: (금년) 8,560원/600g → (전년) 6,830 → (평년) 8,650
- * 산지가격: (금년) 5,860원/600g → (전년) 4,800 → (평년) 6,290
-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4/4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1,520톤)보다 24% 적은 1,150톤임.
- 2014년산 재배면적은 2013년산보다 20% 감소한 3만 6,120ha로 확정 발표됨 (통계청, 8.28).

【 2014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18.4	-12.7	-22.3	-17.6	-21.6	-23.3	-19.9	-21.7	-20.4

자료: 통계청.

- 11월 25일 통계청 조사결과, 2014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8%, 19% 적은 8만 5,100톤으로 확정 발표됨.
- * 정식기(4~5월) 이후 가뭄이 지속되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작황이 부진하였으며, 8월에는 집중호우로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여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전년보다 9% 감소한 236kg임.

【 2014년산 건고추 생산량 】

연산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2014		36,120	236	85.1
2013		45,360	260	117.8
평년		44,920	234	105.3
증감률 (%)	전년	-20.4	-9.2	-27.8
	평년	-19.6	0.7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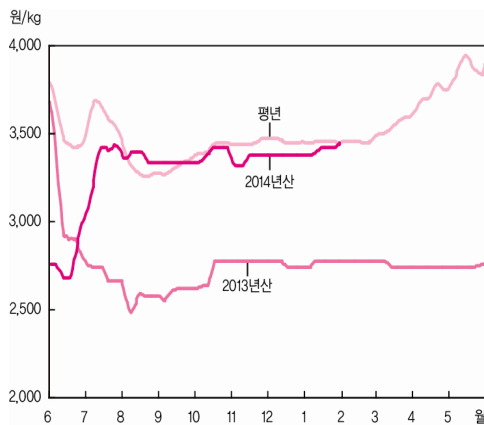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이월 재고가 많아 2015년 1/4분기 국내산 공급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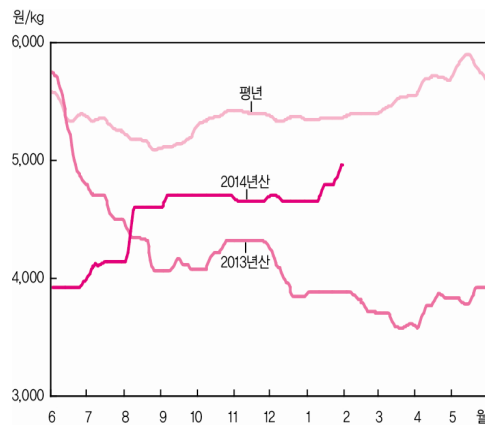
- 국내산 건고추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건고추의 소비가 식자재업체, 외식업체 등 대규모 수요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입량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1월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7% 높고, 전월보다는 4% 하락한 5,500원임. 화건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1% 높고, 평년과 비슷한 8,240원임.
- 2015년 1/4분기 도매가격은 2014년 1/4분기(6,660원/600g)보다 높고 평년(8,210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3.2. 마늘

【 난지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깎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9년 6월~2014년 5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2014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4/4분기 난지형 마늘과 깎마늘 도매가격(5대 도매시장)은 전년보다 각각 23%, 12% 높으나 2013년산 이월재고 출하량이 많아 평년보다는 각각 2%, 13% 낮음.

* 난지형: (금년) 3,377원/kg, (전년) 2,754원/kg, (평년) 3,444원/kg

* 깎마늘: (금년) 4,672원/kg, (전년) 4,168원/kg, (평년) 5,375원/kg

- 2013년산 마늘 유통이 증가하면서 4/4분기 마늘 수입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 27% 적은 수준

* 수입량: (금년) 11,416톤, (전년) 13,931톤, (평년) 15,730톤

● 2014년산 마늘 재고량 평년과 비슷한 수준

- 2014년 12월 말 기준, 2014년산 마늘 출고량은 약 4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8% 적은 것으로 추정됨.
- 감모를 감안한 저장마늘 추정 재고량은 약 5만 4천 톤으로 입고량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 동기보다 26% 적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

【 2014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추정 】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4	105,354	48,161	3,370	53,823
2013	130,269	52,529	5,488	72,251
증감률	-19.1	-8.3	-38.6	-25.5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4년산 5.9%, 2013년산 7.1%)을 적용하고, 정부 구매·비축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됨.

자료: 농업관측센터, 1월 1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5년산 마늘 생산량 평년보다 다소 적을 전망

- 2015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2014년산보다 4% 감소한 약 2만 4천 ha 전망
 - * 마늘 농가소득 감소로 인해 한지형과 난지형 남도종 재배면적이 각각 6%, 10% 내외 감소한 반면, 금년도 출하기 가격이 상승했던 난지형 대서종 재배면적은 약 5% 증가 전망
- 결주가 적고 겨울철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2015년산 마늘 생육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좋은 수준
- 농업관측센터 예상단수 1,338kg/10a를 적용한 2015년산 마늘 생산량은 약 32만 2천 톤으로 평년 수준의 33만 톤보다 다소 적을 전망

【 2015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5	24,037	1,338	321.7
2014	25,062	1,412	353.8
평년	25,757	1,278	329.3
전년 대비	-4.1	-5.2	-9.1
평년 대비	-6.7	4.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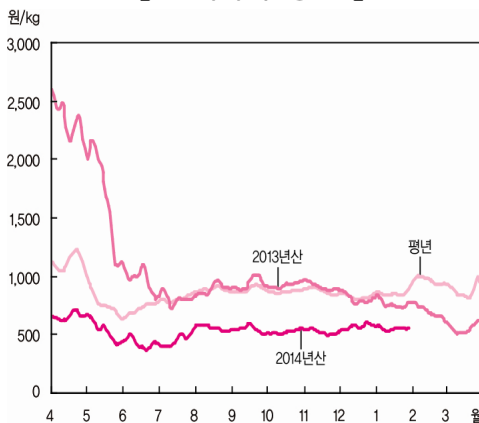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5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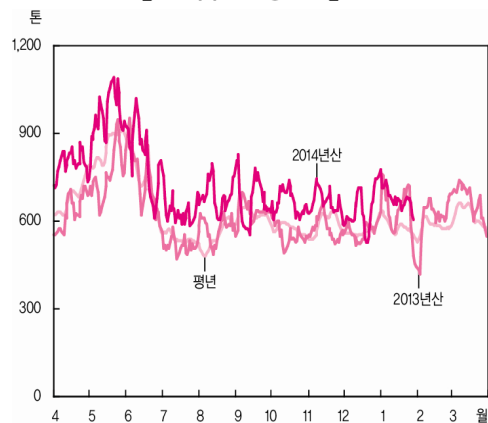
- 2013년산 이월재고량이 점차 소진되면서 2015년 1/4분기 난지형 마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2014년 4/4분기 대비 강보합세 전망
- 2014년산 마늘 재고량과 수입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1/4분기 마늘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 전망
- 향후 2015년산 마늘 작황 수준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성 존재

3.3. 양 파

【 도매가격 동향 】



【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9년 4월~2014년 3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9%, 37% 낮은 539원임. 일 평균 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7%, 2% 많은 약 660톤임.

* 도매가격: (금년) 539원/kg → (전년) 882원 → (평년) 858원

* 반입량: (금년) 659톤 → (전년) 562톤 → (평년) 646톤

- 1월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7%, 36% 낮은 552원임.

● 2014년산 양파 저장 동향

- 1월 말 기준, 2014년산 양파 출고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1%, 25% 많은 51만 2천 톤임. 감모를 감안한 재고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9%, 34% 많은 22만 2천 톤으로 추정됨.

【 저장업체 양파 재고량 전년 대비 증감률(1월 말 기준) 】

단위: 천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4년		771	512	37	222
2013년		662	425	33	204
평년		605	411	28	166
증감률	전년	16.4	20.5	12.3	8.7
	평년	27.4	24.5	31.6	33.8

주: 재고량(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4년 14.2%, 2013년 13.8%, 평년 14.4%)을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5년산 양파 생산 동향

- 2015년산 양파의 재배면적은 2014년산 보다 8% 감소하며, 평년과는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2015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만 2,016ha로 추정됨. 추정 재배면적에 평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2015년산 양파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한 142만 8천 톤으로 추정됨.
- 제주지역 조생종 양파 작황은 겨울철 기온 상승에 따른 고자리파리 발생으로 결주가 20% 내외 발생하여 전년보다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전남 고흥, 무안지역의 조생종 양파 작황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임. 생육속도가 빨라 웃자람 현상, 분구 발생이 우려되나, 현재까지 작황 수준은 양호한

편입. 2015년 1/4분기 기상에 따라 조생종 양파 작황은 변동될 수 있음.

【 2015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5년		22,016	6,486	1,428
2014년		23,911	6,649	1,564
평년		22,018	6,486	1,428
증감률	전년	-7.9	-2.5	-8.7
	평년	0.0	-	0.0

주: 2015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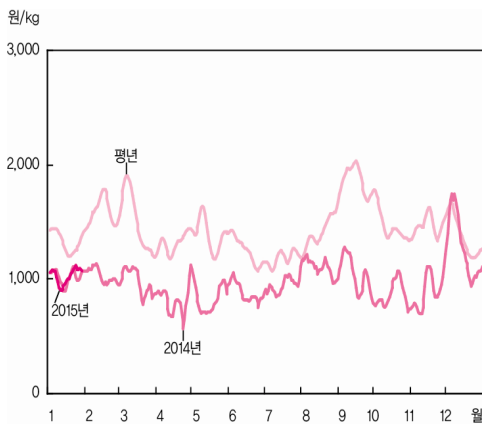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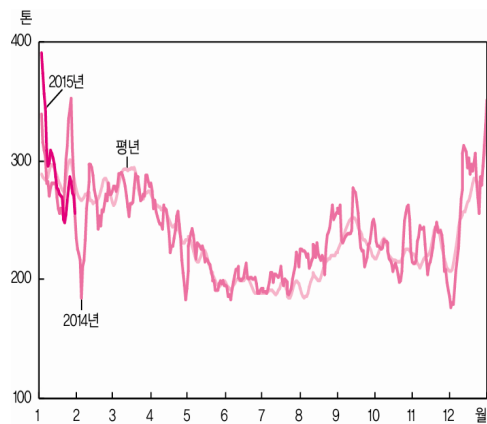
- 1/4분기 양파 상품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많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조생종 햅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 가격은 상반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5월 이후 가격은 중만생종 작황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전망됨.

3.4. 대 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대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10년~2014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대과 4/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017원(중품 876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6%, 29% 낮음.
 - * (금년) 1,017원/kg → (전년) 1,210원 → (평년) 1,431원
 - * (10월) 855원/kg → (11월) 882원 → (12월) 1,313원 → (2015년 1월) 1,025원
- 재배면적이 증가한 경기·강원지역 생산량 증가로 대기물량이 많고 중·하품 출하비중이 높아 가격은 약세를 이어감.
- 12월 초 한파와 강설로 경기·강원지역 대과 출하 종료와 더불어 일시적으로 겨울대과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겨울대과가 정상 출하되면서 가격은 약세를 이어감.
- 국내산 대과 가격 약세가 지속되어 10~12월 대과 총 수입량은 전년, 평년 대비 각각 4%, 3% 감소한 16,843톤임.
 - * (금년) 16,843톤 → (전년) 17,516톤 → (평년) 17,368톤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대과 주산지인 전라남도 재배면적은 3,408ha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주산지인 신안, 진도, 영광군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여 비주산지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1. 23) 2015년 1월말 기준 겨울대과 출하완료 면적은 41%로 추정되며 전년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조사됨.
 - * 작황이 부진으로 평당 수확량 감소로 출하속도가 빨라 진도, 신안군 2월까지 출하면적은 증가하고 3월 이후 감소할 전망.
 - * 영광군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작년 출하되지 않은 전북지역 가을대과와 봄대과 출하로 이후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
- 출하 초기 남부지방 강설과 강풍피해로 전반적인 작황은 부진하여 단수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 진도군 고군면, 지산면을 중심으로 폭설, 강풍 피해가 겹쳐 단수 감소폭이 컸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신안지역 작황은 대체로 양호.
 - * 최근 기상여건이 좋아 작황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출하되는 대과 단수는 전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출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기물량이 많고 작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 대과 도매가격은 1,000~1,100원/kg으로 보합세가 전망됨.

* 중·하품 출하비중이 높아 큰 폭의 가격 상승 없이 약세 전망.

【 겨울대과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주산지 출하완료 면적 】

단위: %

구분	겨울대과 재배면적	출하완료 면적(금년)	출하완료 면적(작년)	증감
신안군	5.2	43.1	36.8	6.3
진도군	-2.6	42.8	45.0	-2.2
영광군	2.4	31.0	25.1	5.8
전체	1.1	40.8	38.5	2.3

자료: 농업관측센터, 1월 23일 표본농가 조사치.

3.5. 양념채소 중기선행관측

● 2015년 1/4분기 특징

- 건고추는 10월 중하순 수확이 종료되며, 농가는 직거래 등을 위한 소량의 물량만을 보유하고 대부분의 건고추는 겨울 이전에 출하됨. 1/4분기는 건고추의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로 전분기의 가격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음.
- 마늘·양파는 저장고에 저장된 물량의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음. 햇양파 출하기 직전인 3월의 양파 가격은 저장량 부족하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저장량이 많으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특징이 있음.
- 대과는 1~2월은 남해안 지방의 주산지에서 주로 출하가 이루어지고, 3월부터는 영광·부안 등 전라남북도의 주산지에서도 출하가 이루어짐. 대과는 양파와 대체 관계가 강한 작물로 양파 가격의 등락이 대과 가격의 등락에도 일정한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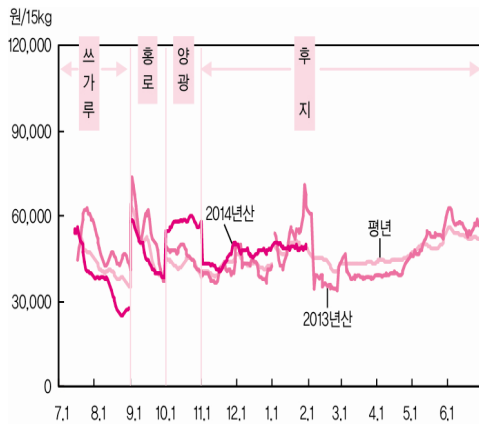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양념채소 전망

- 2014년산 건고추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30% 감소하였으나 이월재고가 많아 공급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가격은 전년보다는 높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산 마늘 입고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3년산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이 마무리되어 공급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2015년산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4년산 가격은 커다란 변동없이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양파는 입고량이 많아 500~600원/kg 수준의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조생양파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나 저장 양파의 물량이 충분하여 3월까지의 가격 약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초겨울 강설과 강풍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지방의 일부 대파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배면적이 충분하고 작황도 양호하여 출하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3월 겨울대파 출하량이 감소할 수 있으나 영광·부안 등의 출하 대기 물량이 충분하여 출하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큰 폭의 가격 반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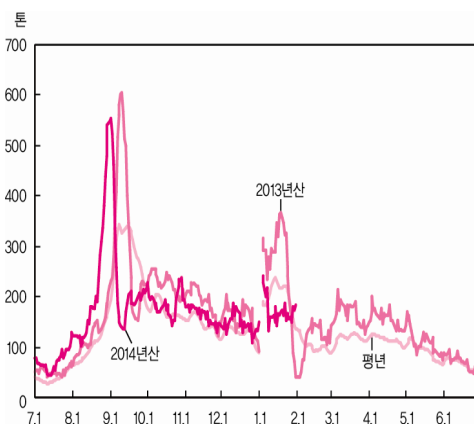
4. 과일기

4.1. 사과

【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사과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산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사과 4/4분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반입량이 소폭 증가(전년대비 5%)하였으나, 당도 등 품질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16%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5만원이었음.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후지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0%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9천원이었음. 이는 전년 1월의 경우 설 명절이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사과 출하량은 저장량이 다소 적으나, 대과 중심으로 저장된 물량이 많아 전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한 3만 1천 ha 정도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신규식재와 과원갱신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하겠으나, 성목면적은 2013년까지 유목면적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품종별로 일반후지(동북 7호)와 후지조숙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3%(280ha) 감소하겠으나, 착색계후지는 5%(320ha) 증가할 것으로 보여 후지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홍로와 감홍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3% 증가하겠으며, 쓰가루와 양광은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사과 재배면적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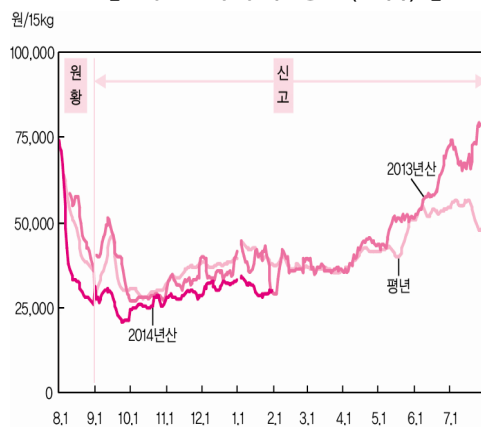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4년	9,303	21,399	30,702
2015년	9,515	21,356	30,871
증감률	2.3	-0.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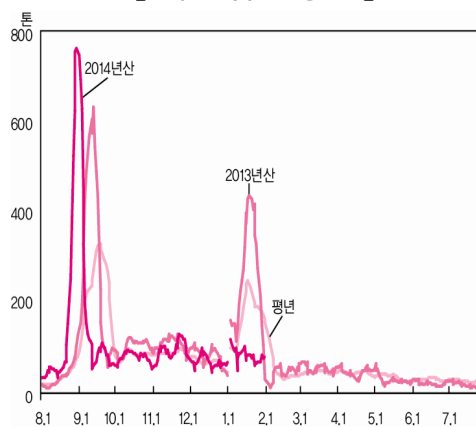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4년),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4.2. 배

【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배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산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배 4/4분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11% 낮았음. 반입량이 전년보다 6%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았던 것은 품질이 좋지 않은 미판매된 추석용 배 출하가 많았고, 소비도 부진하였기 때문임.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신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2%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1천원이었음. 이는 전년 1월의 경우 설 명절이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배 출하량은 2014년산 저장량이 많은데다, 대과 저장 비중도 높아 전년보다 13% 많은 5만톤 수준으로 예상됨.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만 2,970ha로 면적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배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5년	884	12,088	12,972
2014년	897	12,230	13,127
증감률	-1.4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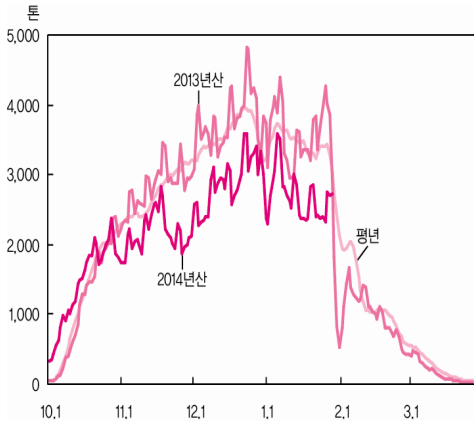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4년),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4.3. 감귤

【 노지온주 도매가격 동향 】



【 노지온주 출하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산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4년 4/4분기 동향

- 노지온주 4/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kg당 1,100원으로 전년(1,400원)보다 17% 낮았음. 출하량이 전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았던 것은 품질 저하와 소비 부진 때문으로 판단됨.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노지온주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적었음에도 전년보다 34% 낮은 kg당 1,000원이었음. 이는 품질이 전년보다 좋지 않았고, 소비 대체재인 딸기의 출하량도 많았기 때문임.
- 2월 이후에도 소비부진으로 인한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감귤 재배면적은 성목면적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1% 줄어든 2만 1천 ha 정도로 전망되어 면적 감소세는 201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감귤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5년	1,038	20,194	21,232
2014년	1,035	20,303	21,338
증감률	0.3	-0.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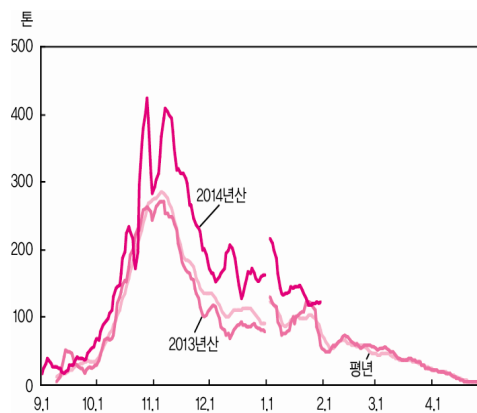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4년),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4.4. 단감

【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단감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산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부유 4/4분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보다 33%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7천원이었음.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부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전년(2만 8천원)보다 40% 낮은 1만 7천원이었음. 이는 생산량 증가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단감 출하량은 저장량이 많아 설 명절 수요에 맞춰 집중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26% 많은 1만 3천 톤 수준으로 예상됨.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단감 재배면적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폐원 및 작목전환으로 전년 보다 2% 감소한 1만 2천 ha로 예상됨.

【 2015년 단감 재배면적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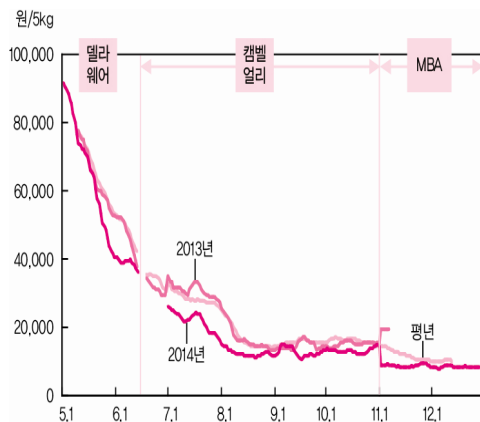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5년	1,273	10,945	12,218
2014년	1,305	11,146	12,451
증감률	-2.4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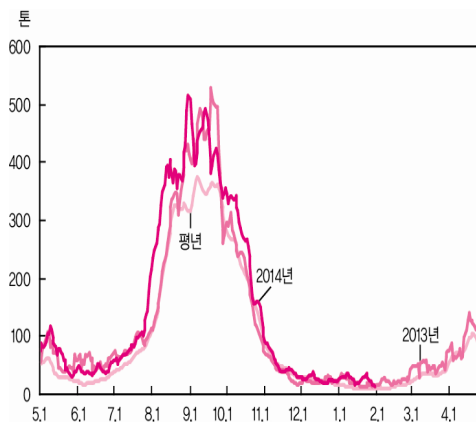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4년),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4.5. 포도

【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포도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9~13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포도 4/4분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kg당 2,226원으로 전년보다 24% 낮았음. 이는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 가락시장 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1만 6,280ha로 전망됨. 작형별로는 노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 감소하고, 시설은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설재배 중에서도 가온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하나, 무가온 재배면적은 노지·가온재배에서 무가온 재배로 전환되고, 신규면적도 증가하여 3% 확대될 전망이다.

【 2015년 포도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5년	2,306	13,973	16,278
2014년	2,329	14,019	16,348
증감률	-1.0	-0.3	-0.4

자료: 통계청(2014년),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4.6. 복숭아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5% 증가한 1만 6,350ha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신규식재로 전년보다 6%, 성목면적은 유목의 성목전환으로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품종별 재배면적은 천도계가 전년보다 2%, 유모계는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기별로는 조·중생종 면적이 만생종보다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기간을 단축시켜 농가의 노동력을 줄이고, 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임.

【 2015년 복숭아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5년	6,083	10,270	16,352
2014년	5,730	9,809	15,539
증감률	6.2	4.7	5.2

자료: 통계청(2014년),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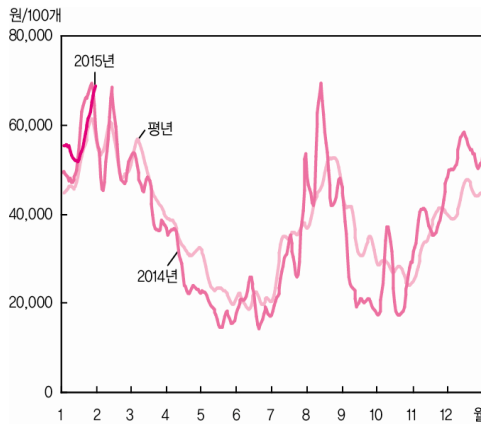
4.7. 수입과일 동향

- 2014년 수입과일 동향
 - 주요 과일의 2014년 수입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66만 6천 톤 내외였음.
- 오렌지·포도·석류
 - 2014년 오렌지·석류 수입량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냉해와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으로 전년보다 20~30% 가량 감소하였음. 포도 수입량은 2014년 국내 생산량이 크게 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바나나·파인애플
 - 2014년 바나나 수입량은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하였던 전년과 달리 필리핀 현지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15% 증가하였음. 파인애플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키위·자몽·체리·망고
 - 2014년 키위 수입량은 전년 칠레 냉해로 수입량이 줄어 전년보다 2% 감소한 2만 톤이었음. 자몽·체리·망고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50~70%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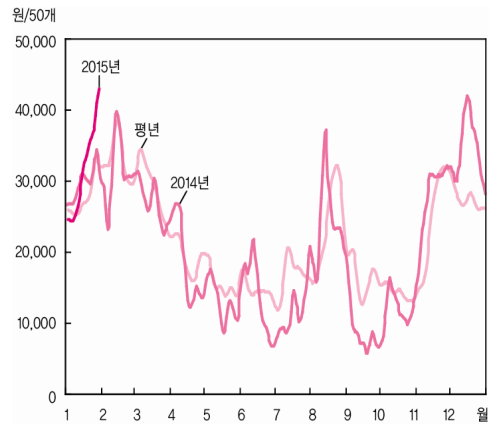
5. 과채⁸⁾

5.1. 오이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0~2014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0월 2만 4,300원, 11월 3만 8,600원, 12월 5만 3,4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3만 8,8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 평년보다는 14% 높았음.
- 4/4분기는 충청지역의 가을작형과 영남지역의 겨울작형 출하가 겹치는 시기이나, 충남 천안, 공주, 충북 진천 등 충청지역에서 예년보다 이른 기온하락으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12월 초·중순경 경북 지역의 강설로 인하여 생육상황이 좋지 못했음. 11~12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10% 적었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10월 1만 1,900원, 11월 2만 7,900원, 12월 3만 4,6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1%, 16% 높은 2만 4,8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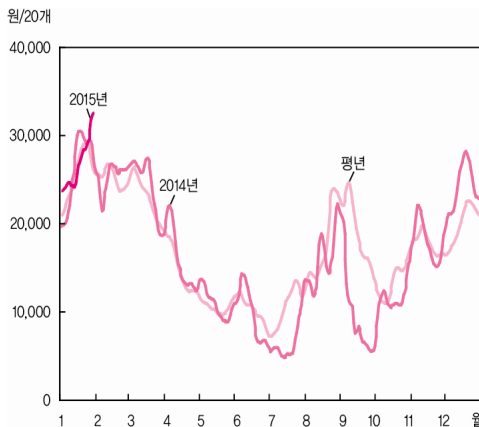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부연(sese85@krei.re.kr), 이남표(inh080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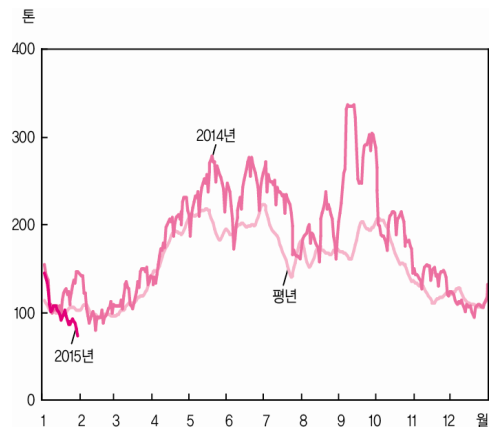
- 1월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경북지역의 출하면적이 확대되었으나,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1% 높은 상품 100개에 5만 7,900원이었음.
- 1/4분기에는 영남지역의 겨울작형 출하가 지속되고, 경북 상주를 중심으로 출하면적이 확대되어 기상이변이 없는 한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월 취청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중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호남지역 작황 부진으로 상품 50개에 3만 2,300원으로 전년보다 8% 높았음.
- 하지만 호남지역의 출하면적 확대로 기상이변이 없는 한 1/4분기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애호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0~2014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0월 1만 1,500원, 11월 1만 8천원, 12월 2만 4,2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1만 7,9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25%, 11% 높았음.
- 10월 반입량은 충청지역의 출하 증가로 작년보다 6% 많았으나, 이른 기온하

락으로 인한 충청지역 출하 감소와 영남지역의 작황 부진으로 11~12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6%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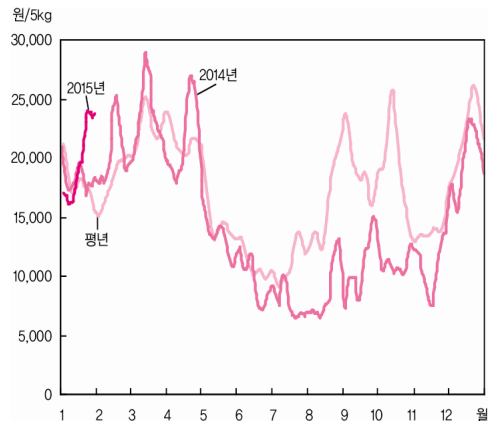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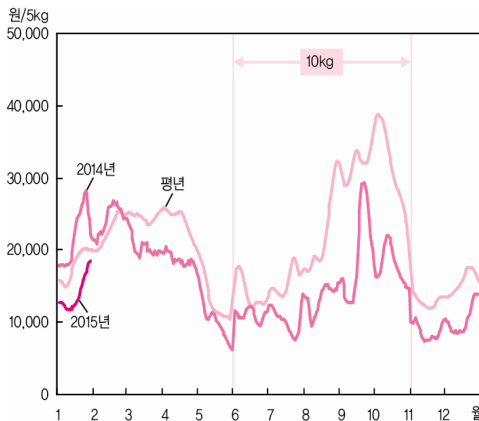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영남지역의 일기불순으로 전년보다 2% 상승한 상품 20개에 2만 7천원이었음.
- 1/4분기에는 영남지역의 출하가 지속되고, 경남 진주를 중심으로 고성, 의령지역의 출하면적도 증가함에 따라 기상이변이 없는 한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0~2014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1만 7,800원, 11월 8,700원, 12월 1만 5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1만 2,3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37%, 39% 낮았음.
- 일반토마토 10~12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31% 많았음. 이는 강원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신규 시설면적 확대 및 타 작목에서의 전환 등으로 정식면적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도 좋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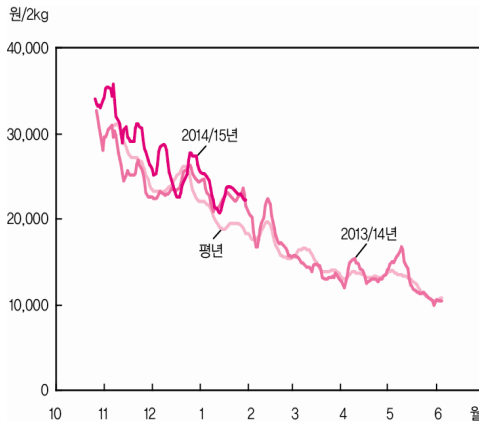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0월 1만 1천원, 11월 1만 700원, 12월 1만 9,7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1만 3,8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0%, 26% 낮았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3kg 상자에 10월 1만 2천원, 11월 1만 100원, 12월 1만 1,3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1만 1,200원으로 작년보다 16% 낮았음.
- 방울토마토 4/4분기 전체 반입량은 작년보다 24% 많았음. 이는 주산지인 강원 춘천을 중심으로 경기 평택, 충남 부여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대추형 토마토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많은데다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도 좋았기 때문임.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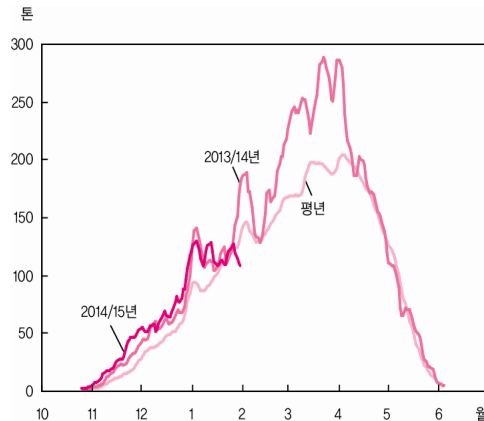
- 1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재배면적이 증가한 호남·영남지역에서 출하가 증가하여 상품 5kg 상자에 1만 4,200원으로 전년보다 35% 낮았음.
- 1/4분기는 영남지역의 출하비중이 높은 시기로 타 작목에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많아 출하량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1/4분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1월 원형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9,900원으로 전년보다 9% 높았음. 대추형도 3kg 상자에 1만 4,300원으로 전년보다 15% 낮았음. 이는 원형 방울토마토 재배농가가 대추형으로 전환하여 원형 출하량은 감소한 반면, 대추형의 출하는 증가하였기 때문임.
- 1/4분기 품종별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충청·호남지역에서 원형 재배농가가 대추형으로 전환이 많아 원형은 전년보다 감소, 대추형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딸기

【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딸기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0~2014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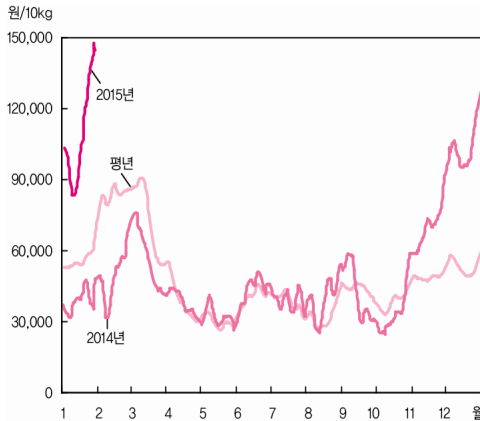
- 딸기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1월 3만 1천원, 12월 2만 5,4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2만 8,4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2%, 10% 높았음.
- 딸기 11~12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17% 많았음. 이는 타 작목에서 딸기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정식 면적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정식이 앞당겨져 출하 초기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 딸기 반입량이 작년보다 많았음에도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딸기 판촉행사로 딸기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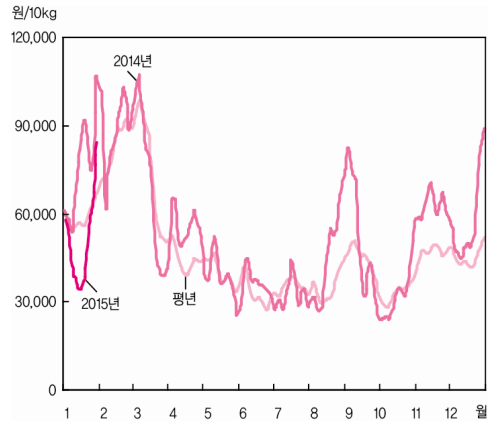
- 1월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2만 2,900원으로 전년보다 2% 높은 수준임.
- 1/4분기는 모든 지역에서 딸기가 출하되는 시기인데, 정식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5.5. 풋고추

【 청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0~2014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4/4분기 동향

- 청양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3만 4,400원, 11월 6만 9,300원, 12월 10만 4,5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6만 9,4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34%, 64% 높았음.
- 4/4분기는 강원과 호남지역의 끝물 출하와 영남지역의 첫출하가 겹치는 시기로 10~11월에는 재배면적이 확대된 강원지역에서의 출하가 이어지면서 반입량은 작년보다 5% 많았음. 하지만 12월에는 주산지인 경남 밀양, 진주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반입량이 작년보다 6% 적었음.
- 녹광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3만 2,200원, 11월 6만 3,300원, 12월 5만 7,5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5만 1천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84%, 32% 높았음.
- 녹광풋고추 10~12월 반입량은 경남 진주, 창녕에서 룡그린, 모닝 등으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가 많은데다, 작황도 부진하여 작년보다 24% 적었음.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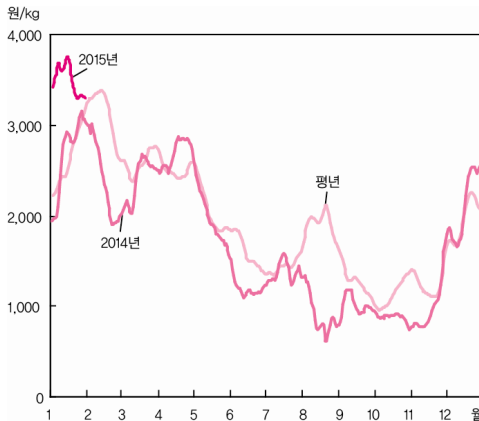
- 1월 청양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속품 10kg 상자에 11만 4,200원으로

전년보다 197% 높았으며, 녹광풋고추는 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28%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5만 5,5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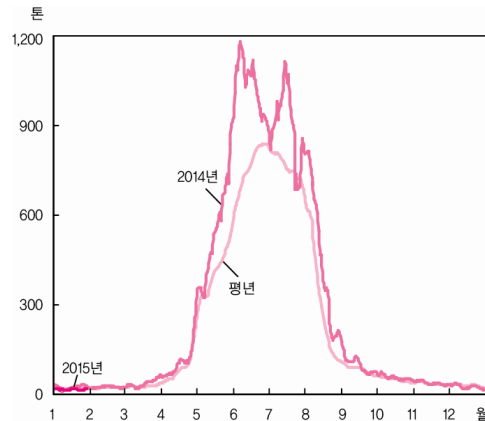
- 1/4분기 청양풋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영남지역에서의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적겠으나, 녹광풋고추는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던 전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됨.

5.6. 수박

【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수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0~2014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4년 4/4분기 동향

-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0월 880원, 11월 950원, 12월 2,11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1,31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 상승하였음.
- 4/4분기 반입량은 영남·충청지역의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13%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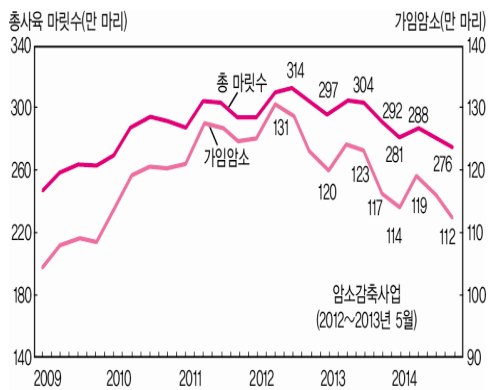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3,480원으로 전년보다 30% 높았으며 반입량은 전년보다 21% 적었음.
- 1/4분기 수박 출하량은 전년 4/4분기 시설수박의 정식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6. 축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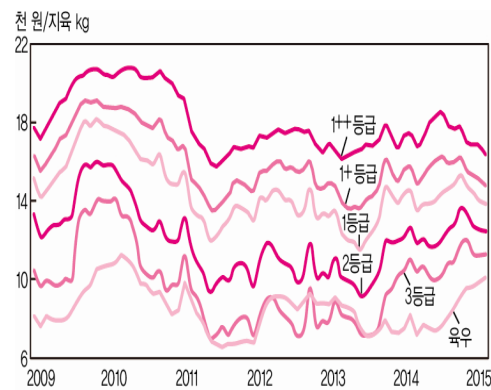
6.1. 한육우

【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4년 4/4분기 동향

- 계절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줄고 도축이 늘어 작년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9월(282만 마리)보다 2.2% 감소한 276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92만 마리보다 5.4% 감소).
- 추석 이후 수요 감소로 4/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3/4분기 14,910원/지육 kg보다 3.6% 하락한 14,379원임(전년 동기 14,189원보다 1.3% 상승).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연초 소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설 명절이 작년보다 늦어 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작년 12월보다 1.1% 하락한 13,845원이었음(전년 동월 14,483원보다는 4.4% 하락).
- 송아지 생산이 줄어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12월 276만 마리보다 2.9% 감소한 268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81만 마리보다 4.7% 감소).
- 2~3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4/4분기보다 0.8% 상승한 14,500원 내외로 전망됨(전년 동기 13,675원보다 6.0% 상승).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지인배 부연구위원(jiinbae@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형진 연구원(junjang00@krei.re.kr), 한봉희 연구원(hanbh@krei.re.kr), 정서미 연구원(wjdtpl55@krei.re.kr), 이윤경 연구원(yk0817@krei.re.kr)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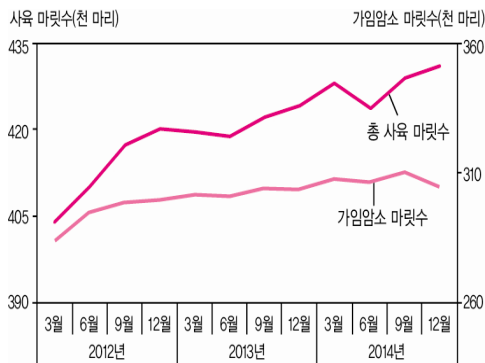
- 대책 방향
 -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할인행사 탄력적 운용
 - 도매와 소매단계 시장 모니터링 강화

【 한육우 사육 마릿수 및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12월(A)	3월(B)	B/A
사육 마릿수	276만 마리	268만 마리	-2.9%
1등급 가격 (지육kg)	10~12월 14,379원	2~3월 14,500원 내외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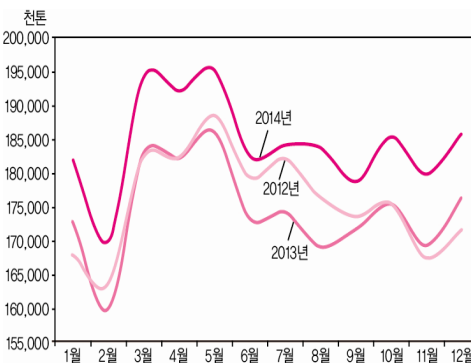
6.2. 젓소

【 사육 동향 】



자료: 통계청

【 원유 생산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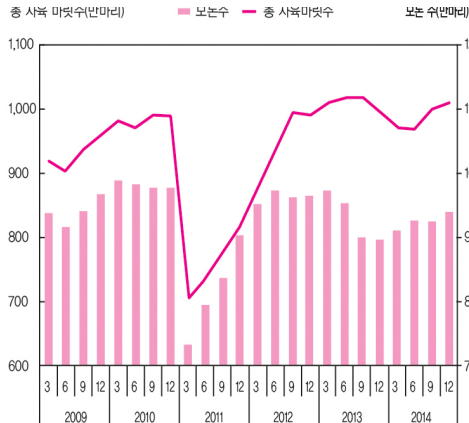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4년 4/4분기 동향
 - 12월 젓소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43만 1천마리, 가임암소 마릿수는 0.3% 증가한 30만 5천 마리임.
 - 2014년 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55만 1천 톤이었음. 2014년 총 원유 생산량은 221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5.8% 많았음.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5년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4~1.3% 증가한 54만 8천~55만 3천 톤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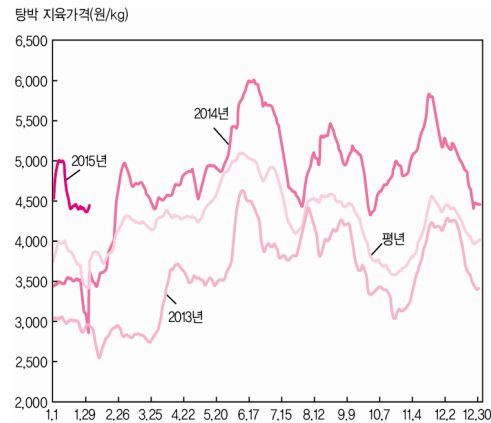
6.3. 돼지

【 돼지 사육 마릿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돼지 도매가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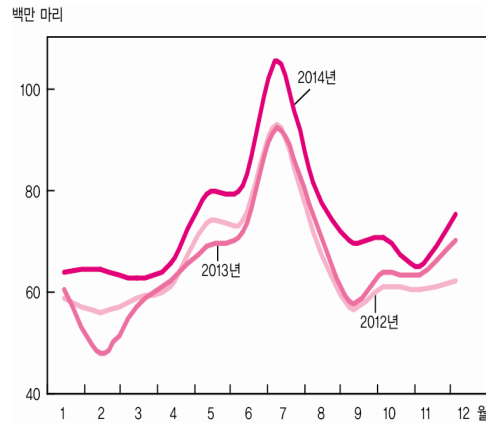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4년 4/4분기 동향
 - 12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9월보다 1.2% 증가한 1,009만 마리, 모돈수는 9월보다 1만 2천 마리 증가한 93만 7천 마리였음(통계청).
 - 등급판정 마릿수가 전년 동기보다 7.1% 감소하였고,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4/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 3,691원보다 35.8% 높고 평년 동기 4,089원보다도 22.6% 높은 탕박 1kg 기준 5,013원이었음.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모돈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3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소폭 증가한 990~1,010만 마리로 전망됨.
 - 1/4분기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4,006)와 평년(4,016원)보다 높은 탕박 기준 kg당 4,6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책 방향
 - FMD 확산 방지 위한 차단 방역 강화 및 철저한 백신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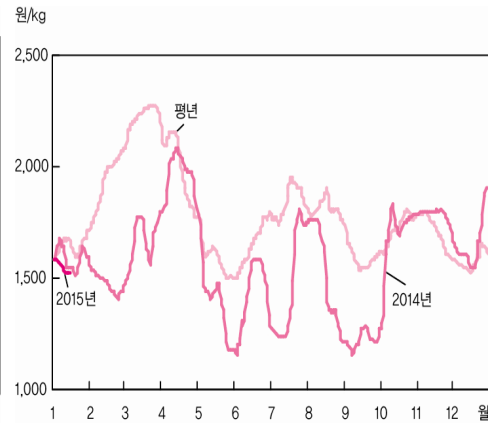
6.4. 육계

【 도계 마릿수 추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육계 산지가격 동향 】



주: 평년은 2010~1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 2014년 4/4분기 동향

- 2014년 4분기 육용 종계 노계 도태 증가로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닭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분기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라 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6.9% 증가한 2억 1,100만 마리임.
-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작년 수산물 소비 대체효과 축소로 닭고기 수요가 전년보다 감소함. 이로 인해 계열업체의 연말 냉동비축물량은 전년보다 186% 증가하였음.
- 4분기는 도계 마릿수 증가와 닭고기 수요 감소로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2014년 4/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8.6% 하락한 1,720원/kg임.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 12월 미국의 AI 발생으로 가금육의 수입이 금지되었음. 이에 따라 2015년 1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AI 확산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수입이 금지될 수 있음.
- 2015년 1/4분기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미국의 닭고기 수입금지와 계열업체의 육계 사육의향 증가로 병아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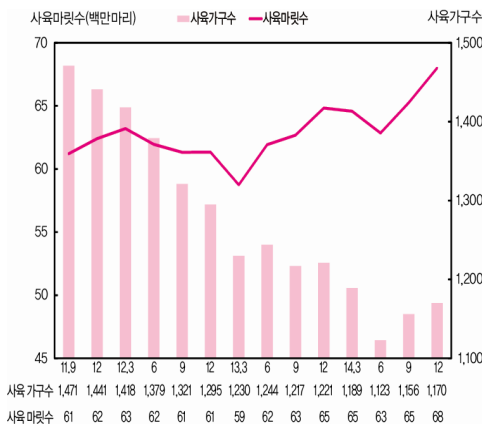
- 병아리 생산 증가로 1/4분기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국내 닭고기 공급량은 전년수준으로 전망됨. 또한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로 수입 닭고기가 국내산 닭고기로 일부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 1분기 닭고기 공급은 전년 수준이지만, 수입 닭고기의 국내산 대체효과로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기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1월: 1,643원/kg, 2월: 1,600~1,800원/kg, 3월: 1,800~2,000원/kg)

● 대책 방향

- 국내산 닭고기 생산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적정 닭고기 생산 및 합리적인 병아리 입식이 절실한 때임.

6.5. 산란계

【 산란계 사육현황 】



자료: 통계청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자료: 농협중앙회

● 2014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6,770만 마리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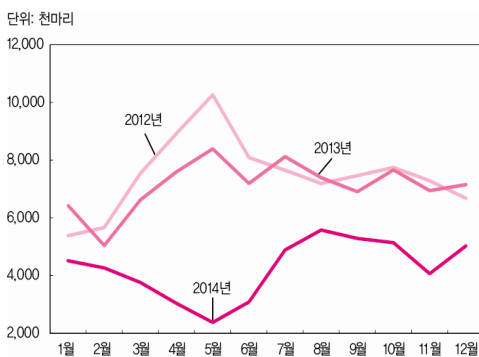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전년보다 22.8% 증가한 1,200만 마리였으며, 4분기 산란 성계도태는 전년보다 1.5% 감소한 602만 마리였음.
- 산란 성계도태 감소 및 산란계군의 증가로 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4.9% 하락(평년 대비 11.0% 상승)한 1,364원(특란 10개)이었음.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4분기 산란에 가담할 신계군 증가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HPAI에 따른 매몰 처분에도 불구하고,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가 증가하여 계란 공급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계란 공급량 증가 및 수요 증가요인 부재로 1분기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250~1,45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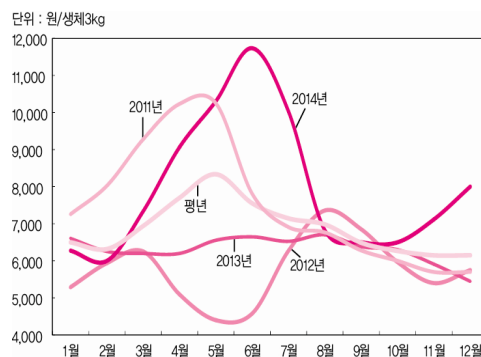
6.6. 오리

【 도압 마릿수 추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오리 생체가격 동향 】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4년 4/4분기 동향

- HPAI 발생으로 9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33.1% 감소한 820만 마리, 12월은 30.8% 감소한 754만 마리였음.
- 8~10월 육용오리 입식 감소로 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대비 34.7% 감소한 474만 마리였음.

- 오리 도압 마릿수 감소로 오리 생체(3kg)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4% 상승한 7,206원이었음.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 11, 12월 육용오리 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28.3% 감소한 6만 9천 톤이었음.
→ 1월 이후 오리고기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1분기는 계절적으로 오리고기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임. 계절적인 요인 외 추가적인 변동 요인이 없어 수요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1, 2월 HPAI에 따른 매몰처분으로 오리 고기 공급 감소가 예상되어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1분기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7,000~7,500원/3kg으로 전망됨.

특 별 주 제

- ① 양곡표시사항 개정
- ② 귀농·귀촌과 농촌 사회·경제의 변화



【특별 주제 1】

양곡표시사항 개정*

김태훈**, 김지연***

1. 개정배경

- 쌀 의무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이 강화되고 적발건수가 증가함.
 -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실태¹⁾를 보면, 연평균 30~40건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급증하여 2013년 기준 319건이 적발됨.
 - 부정유통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밥쌀용 수입쌀로 2011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단속 대상의 확대와 단속 강화로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임.
- 2015년 쌀 관세화 이행을 앞두고 농업계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쌀의 혼합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정부도 2014년 9월 18일에 「쌀 산업 발전대책」의 중요과제로 발표함.
 - 쌀의 원산지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수입쌀 부정유통의 부당이익이 커지고 혼합비율 등을 단속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본고는「수입쌀 유통현황 및 부정유통 방지 대책 수립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taehu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jykim12@krei.re.kr)

1)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적발건수임.

【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실태 】

단위: 건수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밥쌀용	-	24	27	37	25	18	131	372	310
가공용	28	15	21	11	11	15	17	14	9
계	28	39	48	48	36	33	148	386	319

자료: 김태훈·김지연, 수입쌀 유통현황 및 부정유통 방지 대책 수립 연구 (2014: 17)

- 한편, 국내산 햅쌀 출하시기에 구곡과 신곡을 혼합하여 햅쌀로 거짓 표시하여 부정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
 - 연도별 생산연도 위반 적발건수(거짓표시, 미표시)를 보면 '11년 115건에서 '12년 12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3년은 92건으로 다소 감소함.
- 따라서 쌀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국내외산 쌀의 혼합 유통 및 판매 금지와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률이 개정됨.

2. 현행 양곡 표시사항과 방법

- 양곡표시에 관한 일반사항은 '양곡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산지관련 규정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됨.
- 양곡 표시(원산지 표시 포함)²⁾를 위반한 경우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이 제9조 2에 규정되어 있으며(2015년 1월 6일 개정), 표시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한 내용인 제21조, 표시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 대한 포상이 제27조 3에 규정되어 있음.

2) 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명시됨.

2.1.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표시사항과 방법

- 양곡 표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의 목적으로 무상제공하는 양곡도 표시하여야 함. 양곡 표시 의무는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에 있음.
 - 미곡류: 멥쌀, 찰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유색미 등
 - 맥류·두류·잡곡류: 보리쌀, 콩, 팥,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분말, 전분류

【 양곡 품목별 확인사항 】

표시항목	쌀		현미	기타양곡
	멥쌀	찰쌀		
품목	○	○	○	○
중량	○	○	○	○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	○	○
원산지	○	○	○	○
품종	○	○	○	-
생산연도	○	○	○	-
도정연월일	○	○	○	-
등급	○	-	-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양곡 표시 사항은 의무표시사항과 임의표시사항으로 구분됨.
 - 의무표시사항: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 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임의표시사항: 단백질 함량
- 양곡 표시 사항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품목은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며,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 가공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되, 혼합된 품목 또는 품명이 다섯 가지를 넘으면 혼합비율 또는 중량이 많이 혼합된 순으로 다섯 가지 이상을 표시함.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 이하로 함.
-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는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하고,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함.
-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은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 표시가 가능한 다른 품종과의 혼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³⁾할 수 있음.
- 도정 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은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함.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함.
- 등급 표시(흑미·향미를 제외한 매향쌀만 해당함)는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하되 등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하고, 가공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용 쌀은 등급표시 대신에 “가공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곡 표시 위치는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양곡 표시사항의 일괄표시 예시에 따라 표시함.
-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 할 수 있음.
- 5kg 이하의 포장양곡은 앞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3)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2호, 2013.10.7., 일부개정]에 따르면 혼입 허용은 20% 이하로 하고 있음.

【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예시) 】

품종	추청	중량	20kg
등급	특, 상, 보통	단백질 함량(임의표시)	수, 우, 미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	
생산연도	2012.	도정 연월일	2013.1.31.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소	○○도 ○○군 ○○로 ○○	
	상호명(성명)	○○미곡종합처리장	
	전화번호	031)000-0000	

- 주: 1.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 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
 2. 단백질함량은 임의표시사항이며, 해당 함량에 ○ 표시
 3.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기법

- 국산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을 표시하며,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함.
-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함.
-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함.
- 농산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98% 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음. 수입 또는 반입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시 혹은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함.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시위치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스티커, 푼말, 진열대나 판매 장소에 안내표시판으로 표기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함.
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 표시 가능함.
- 예: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음식점의 원산지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함.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공통적인 표시방법 외에 영업형태별,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됨.
- 쌀(찐쌀 포함)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함(“쌀(미국산)”).

3. 양곡관리법 개정내용

- 2014년 12월 9일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6개월 뒤인 7월 7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유통 판매가 금지될 예정임.
- 이번 개정은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보호를 위하여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양곡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 등)에 대해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 상기 혼합 금지 위반 시 제재 신설
- 용도 외 사용, 양곡 표시의무 위반, 거짓·과대표시 또는 광고 대상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하였으나, 혼합 판매·유통한 자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재하는 것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제재 강화

【 양곡 관리법 개정 내용 】

	현행	개정
국내외산 미곡의 혼합	• 혼합 시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양곡의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에 대해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양곡관리법 제20조 4의1항)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	•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 수확연도별로 혼합 비율을 표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제20조 4 의 2항)
위반시 제재	• 지정용도의 양곡 처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제32조 1~2호) • 생산연도와 품질 표시의무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4조 4호) • 양곡유통 및 표시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제 21조 1항) •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위반이나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한 경우(제9조 2의 3호)	• 생산연도, 품질의 거짓 혹은 과대 광고와 혼합유통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제32조 3호 및 4호 신설, 34조 4호 삭제) • 혼합유통시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신설(제21조 1항 7의2) • 혼합유통적발시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추가(제9조 2의3호)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지정용도의 용도로 양곡 처분, 생산연도와 품질 표시 위반, 거짓과대 표시 혹은 광고한 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제27조 3의 1-3호)	• 혼합 판매·유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신설(제27조 3의 4호)

3. 요약 및 시사점

-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입쌀의 부정유통 적발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요구가 커짐.
- 현재 수입쌀 부정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이중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보호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시키도록 일부 개정됨.
-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개정을 통해 쌀의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쌀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특별 주제 2】

귀농·귀촌과 농촌 사회·경제의 변화*

박시현**, 최용욱***

1. 통계로 본 귀농·귀촌 현황

1.1. 귀농·귀촌인 수

-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2011년 10,503가구, 2012년 27,008가구, 2013년 32,424가구(56,267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귀농·귀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귀농·귀촌가구수가 1만 가구를 넘었으며, 2012년에는 2011년도에 비해 2.5배 증가하고,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5,416 가구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귀농·귀촌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귀농 인구의 경우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 297가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귀촌은 동 기간 5,713가구 증가하고 있음. 이는 귀농인과 귀촌인이 농업인 등록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 본고는「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2014)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neo999@krei.re.kr)

【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수 】

단위: 가구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89,51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32,424
귀농	-	-	-	-	-	-	-	-	-	-	-	10,075	11,220	10,923
귀촌	-	-	-	-	-	-	-	-	-	-	-	428	15,788	21,501
광역시 이상	1,061	1	1	5	22	35	5	0	0	26	20	124	408	414
경기	17,934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7,671	9,430
강원	11,248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3,758	3,721
충북	10,700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3,815	4,918
충남	5,865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1,533	1,856
전북	9,665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2,228	2,993
전남	8,787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2,046	2,506
경북	13,323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3,095	3,496
경남	9,639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2,121	2,618
제주	1,292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333	472

주: 귀촌 가구 수가 집계되어 공식통계로 발표되기 시작한 연도는 2012년도임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및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 각 년도.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 지역별로 귀농·귀촌 가구가 많은 지역은 2013년의 경우 경기(9,430가구), 충북(4,918), 강원(3,721), 경북(3,496), 전북(2,993) 순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일 수록 귀농·귀촌 가구 수가 많음.
 - 귀농과 귀촌을 분리하여 지역별로 살펴보면 귀농은 2013년 통계 기준으로 경북(2,087)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전남(1,825), 경남(1,348), 전북(1,211), 충남(1,177) 순임.
 - 귀촌은 2012년에 경기 42.1%, 충북 18.8%, 강원 17.7%이며, 2013년도에는 경기도 39.5%, 충북 18.8%, 강원 13.2% 순임.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경기, 강원,에 집중되었던 귀촌 가구가 점차 타 시도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2. 귀농·귀촌 전 거주지

- 귀농자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모든 곳으로 귀농하고 있으나, 그 비율 면에서는 수도권에 가까운 경기도(17.0%)가 가장 높으며, 다음이 충남(14.6%), 전남(14.5%) 순임.

【 출발지 및 도착지별 귀농가구(2013년) 】

단위: 가구, (%)

출발지 도착지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세종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전국 (비율)	10,923 (100.0)	5,194 (100.0)	271 (100.0)	236 (100.0)	668 (100.0)	499 (100.0)	947 (100.0)	1,294 (100.0)	1,707 (100.0)	107 (100.0)
부산	22	1			0		0	3	18	
대구	62	4			0		1	51	6	
인천	87	85			0		0	1	1	
울산	78	4		1	0	1	0	1	71	
세종	80	44		8	24	1	1	1	1	
경기	931 (8.5)	883 (17.0)	11	8	13	2	2	6	4	2
강원	875	610 (11.7)	206 (76.0)	13 (5.5)	8	1	2	9	26	
충북	872	513 (9.9)	11	163 (69.1)	126 (18.9)	3	1	24	31	
충남	1,177 (10.8)	757 (14.6)	5	12	347 (51.9)	7	4	18	26	1
전북	1,211 (11.1)	582 (11.2)	6	4	64 (9.6)	441 (88.4)	51 (5.4)	12	49	2
전남	1,825 (16.7)	755 (14.5)	6	11	29	32 (6.4)	871 (92.0)	18	100 (5.9)	3
경북	2,087 (19.1)	610 (11.7)	22 (8.1)	11	27	1	5	1,033 (79.8)	376 (22.0)	2
경남	1,348 (12.3)	215 (4.1)	2	4	24	8	7	108 (8.3)	977 (57.2)	3
제주	268 (2.5)	131 (2.5)	2	1	6	2	2	9	21	94 (87.9)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2013년도,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같은 권역 내 농촌지역으로 귀농하는 경향을 보임. 예를 들어, 광주·전남 권역에서 귀농하는 사람의 92%는 전남으로 귀농하며, 대구·경북에서 귀농하는 사람의 79.8%가 경북으로,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귀농하는 이 57.2%가 경남으로 귀농함. 수도권 거주자는 원거리 귀농을, 기타 지역은 근거리 귀농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귀촌자의 출발지 도착지를 살펴보면 출발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6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귀농과 비교할 때 수도권 거주자의 귀촌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 출발지 및 도착지별 귀촌가구(2013년) 】

단위: 가구, (%)

출발지 도착지	합계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세종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전국	21,501 (100.0)	13,240 (100.0)	950 (100.0)	1,349 (100.0)	1,373 (100.0)	832 (100.0)	760 (100.0)	1,306 (100.0)	1,584 (100.0)	107 (100.0)
경기	8,499 (39.5)	7,169 (54.1)	303 (31.9)	192 (14.2)	297 (21.6)	64 (7.7)	117 (15.4)	173 (13.2)	171 (10.8)	13 (12.1)
강원	2,846 (13.2)	1,974 (14.9)	521 (54.8)	70 (5.2)	79 (5.8)	8	27	77 (5.9)	85 (5.4)	5
충북	4,046 (18.8)	1,894 (14.3)	70 (7.4)	1,004 (74.4)	604 (44.0)	43 (5.2)	41 (5.4)	202 (15.5)	179 (11.3)	9 (8.4)
충남	679	453	2	9	174 (12.7)	12	5	9	14	1
전북	1,782 (8.3)	693 (5.2)	11	22	118 (8.6)	674 (81.0)	178 (23.4)	17	62	7 (6.5)
전남	681	216	7	4	13	17	358 (47.1)	14	50	2
경북	1,409 (6.6)	396	27	35	34	2	12	684 (52.4)	216 (13.6)	3
경남	1,270	241	6	10	36	11	17	120 (9.2)	769 (48.5)	60 (56.1)
제주	204	160	3	3	5	1	5	8	12	7 (6.5)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2013년도,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 특이한 점은 귀촌지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13년에 귀촌한 8,499가구 중 수도권에서 온 귀촌가구가 7,169 가구로 84.3%를 차지하지만 강원(303가구), 대전·충남·세종(297가구), 대구·경북(173가구), 부산·울산·경남(171가구) 등지의 귀촌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통계로 표시되는 경기도의 귀촌 가구 중에는 전원생활 추구 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됨.

1.3. 귀농가구주 연령

- 2013년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3.1세임. 세대별로는 50대가 39.3%로 가장 많고 40대 23%, 60대 20.9%, 30대 이하 12.0%로 나타남.
- 귀촌이 많은 경기도와 귀농이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비교하면 경기도의 경우 60대 이후가 많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30대 이전과 40대의 비율이 높은 편임. 경상북도는 전국과 비슷한 패턴을 보임.

【 연령별 귀농가구 】

단위: 명, (%)

	전국		경기		전남		경북	
기간	2013년	2010~2013년	2013년	2010~2013년	2013년	2010~2013년	2013년	2010~2013년
합계	10,923 (100.0)	37,623 (100.0)	931 (100.0)	3,651 (100.0)	1,825 (100.0)	5,926 (100.0)	2,087 (100.0)	7,059 (100.0)
30대 이하	1,253 (11.5)	4,508 (12.0)	108 (11.6)	441 (12.1)	243 (13.3)	850 (14.3)	228 (10.9)	770 (10.9)
40대	2,510 (23.0)	9,312 (24.8)	200 (21.5)	823 (22.5)	475 (26.0)	1,607 (27.1)	484 (23.2)	1,774 (25.1)
50대	4,289 (39.3)	14,205 (37.8)	361 (38.8)	1,355 (37.1)	646 (35.4)	2,043 (34.5)	832 (39.9)	2,780 (39.4)
60대	2,288 (20.9)	7,544 (20.1)	200 (21.5)	807 (22.1)	349 (19.1)	1,087 (18.3)	446 (21.4)	1,357 (19.2)
70대 이상	583 (5.3)	2,054 (5.5)	62 (6.7)	225 (6.2)	112 (6.1)	339 (5.7)	97 (4.6)	378 (5.4)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각 년도,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 전라남도의 경우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 젊은 층의 귀농 비율이 높고 경기도의 경우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60대 이후 전원생활 희망자가 귀농을 겸하여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됨.
- 귀촌인의 연령은 귀농인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2013년의 경우 50대가 25.3%로 가장 많고 40대 22.1%, 60대가 20.7%로 나타남.

1.4. 귀농·귀촌 상위 시군

- 2013년도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시군은 경기도 일대와 강원도 홍천군, 충북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등으로 이들 지역은 주로 귀촌가구가 많은 지역임. 2013년도에 귀농가구가 많은 시군은 고창군(194가구), 상주시(184가구), 신안군(141가구), 해남군(149가구), 밀양시(139가구), 양평군(138가구),고흥군(137가구), 영천시(137가구) 순임.
- 귀촌이 많은 상위 지역의 공통된 특성은 서울과의 거리임. 귀촌은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다음으로 자연환경, 지가 수준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귀농의 경우 서울과의 거리, 농업여건, 지자체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3년도에 귀농인구가 가장 많았던 전북 고창과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경북 상주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3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과 농업여건이 양호하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고창군은 평 당 4~5만원 선에서 농지 구입이 가능하며, 농지의 공급능력이 충분하고, 복분자·포도 등 다양한 특화품목 재배가 활발한 지역임. 상주의 경우 지가수준은 약간 높지만,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고 있으며, 작목반을 통한 판매활동이 용이하고, 재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임.
- 귀농·귀촌이 활발한 지역은 지자체의 귀농·귀촌 노력이 활발한 지역인 경우가 많음. 지자체의 노력은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특히 귀농·귀촌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의 설치나 전담자 지정 여부가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에는 귀농·귀촌

지원조직이 있지만, 1-2명의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귀농·귀촌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음.

- 귀농·귀촌이 활발한 고창군과 상주시, 서귀포시 등의 경우 귀농·귀촌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에서 2-3명 전담 인원이 귀농·귀촌을 담당하고 있음.

【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2013년) 】

단위: 가구

	행정구역	귀농·귀촌 가구 수	행정구역	귀농 가구 수	행정구역	귀촌 가구 수
1	가평군	1,483	고창군	194	가평군	1,436
2	파주시	1,227	상주시	184	파주시	1,166
3	양주시	1,100	신안군	141	양주시	1,076
4	화성시	1,055	해남군	139	화성시	969
5	남양주시	936	밀양시	139	남양주시	886
6	홍천군	925	양평군	138	포천시	821
7	포천시	898	고흥군	137	홍천군	799
8	영동군	756	영천시	137	진천군	673
9	양평군	730	제주시	135	영동군	638
10	진천군	715	서귀포시	133	양평군	592
11	고창군	689	의성군	132	음성군	566
12	음성군	650	남원시	130	용인시	511
13	용인시	542	나주시	129	고창군	495
14	청원군	534	청도군	129	청원군	456
15	안성시	455	김천시	128	안성시	375
16	횡성군	449	창녕군	127	보은군	363
17	충주시	447	홍천군	126	강릉시	362
18	보은군	447	예천군	124	충주시	357
19	완주군	414	성주군	120	횡성군	341
20	강릉시	412	영동군	118	영월군	334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2013년도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2. 조사로 본 귀농·귀촌 동향

2.1. 조사 대상

- 전국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귀농·귀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는 지역조사와 온라인 조사로 나누어 진행함. 지역조사는 5개의 시군(충남 서천, 전북 고창, 순창, 전남 강진, 경북 상주)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 20여 명씩 총 100여 명의 귀농·귀촌인과 각 지역별로 5명 내외의 이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조사의 경우, 전국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함.

【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

단위: 명, (%)

구분		전체
응답자수		266
성별 (결측값=2)	남성	221(83.7)
	여성	43(16.3)
연령 (결측값=3)	40대 이하	78(29.7)
	50대	121(46.0)
	60대 이상	64(24.3)
가족 수 (결측값=8)	1인가구	24 (9.3)
	2인가구	89(34.5)
	3인가구	43(16.7)
	4인가구	76(29.4)
	5인 이상 가구	26(10.1)
귀농·귀촌 연차 (결측값=1)	1년차	58(21.8)
	2년차	46(17.3)
	3년차	46(17.3)
	4~5년차	54(20.3)
	6년차 이상	61(23.3)
귀농·귀촌 전 거주지 (결측값=4)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80(68.7)
	광역시(인천 제외)	48(18.3)
	기타	34(13.0)
귀농·귀촌 전 직업 (결측값=2)	자영업	105(39.8)
	임금 근로	118(44.7)
	무직/기타	41(15.5)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2.2. 귀농·귀촌 동기

- 귀농·귀촌 동기에 대해서는 농촌이 좋아서(4.19), 도시생활이 싫어서(3.5), 영농을 위해(3.44), 건강을 위해서(3.4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어려움(2.56)이나 농업 외의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2.55)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자녀 교육(1.77)이나 가정사(1.81) 문제가 귀농·귀촌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임.
- 연령이 낮을수록 영농 동기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귀농·귀촌 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실행 동기 】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농촌이 좋아서	4.19	3.91	4.25	4.17	4.19
도시생활이 싫어서	3.5	3.73	3.58	3.57	3.28
영농을 위해	3.44	3.82	3.52	3.41	3.34
건강을 위해(쾌적한 환경, 먹거리 등)	3.42	3.17	3.43	3.4	3.4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56	1.73	2.07	2.71	2.93
농업외 경제활동 위해	2.55	2.55	2.59	2.59	2.41
가정사의 변화(결혼, 출산, 사별 등)	1.81	1.6	1.92	1.72	1.96
자녀교육을 위해	1.77	2.4	2.46	1.59	1.23

주: 각 항목의 값은 리커트 척도상의 수치임. 응답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1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경우, 5는 매우 중요한 동기였던 경우에 해당함.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2.3. 귀농·귀촌지 결정

- 귀농·귀촌지에 대한 연고 여부는 지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27.1%), 다음이 귀농·귀촌 준비 시점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경우(25.2%), 고향 혹은 부모님 연고지(21.4%)라는 순으로 응답함.
-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에서 고향이나 부모님 거주 지역에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50대는 사전 연고가 없이 귀농·귀촌 준비시점 혹은 귀

농·귀촌에 즈음하여 알게 된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귀농·귀촌 형태가 U 턴 보다는 I 턴과 J 턴 형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50대가 귀농·귀촌지 선택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유로운 입장에 있음을 나타냄.
- J·I 턴 귀농·귀촌은 농업 기반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평야지 농촌지역보다는 과수 특작이 강한 중산간지 농업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인 평야지 농업지역은 부모의 농업기반을 승계하는 승계형 귀농·귀촌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귀농·귀촌지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선호하는 자연 여건(3.91), 낮은 농지가격 및 농지 확보의 용이성(3.55), 농사기술 습득여건(2.88), 적절한 주거비 및 주거지 확보 여건(2.85), 지역민의 호의(2.79)' 순으로 나타남. 교육환경(1.83)이나 전 거주지와의 접근성(2.26)은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짐. 공공의 재정 지원(2.54)과 재정외적 지원(2.65)은 지역민의 호의 보다는 낮은 요인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지 결정에서 자연환경과 농업여건, 주거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공공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귀농·귀촌지 결정 요인 】

	전체	귀농인	귀촌인
선호하는 자연 여건	3.91	3.54	3.49
낮은 농지가격 및 농지 확보용이	3.55	2.96	2.56
농사기술 습득여건	2.88	2.24	2.56
적절한 주거비 주거지 확보의 용이성	2.85	2.75	3.19
지역민의 호의	2.79	3.85	4.07
공공의 재정 외 분야 지원	2.65	2.47	2.56
공공의 재정 지원	2.54	1.85	1.76
양호한 서비스 여건	2.5	2.27	2.19
일자리 찾기의 용이성	2.32	2.8	2.75
전 거주지와의 접근성	2.26	2.53	2.57
교육환경	1.83	2.63	2.67

주: 각 항목의 값은 리커트 척도 상의 수치임. 응답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1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경우, 5는 매우 중요한 동기였던 경우에 해당함.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 귀농자(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귀촌자(현재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별 귀농·귀촌지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귀농인이 귀촌인보다 낮은 농지가격 및 농지 확보의 용이성과 농사기술 습득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귀촌인은 귀농인보다 적절한 주거비 및 주거지 확보의 용이성을 높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2.4. 귀농·귀촌인의 경제 활동

- 귀농·귀촌 초기 비용은 1억 6,61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내역별로는 주거비용이 7,35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영농기반 조성비용 6,820만 원, 초기 생활비 1,830만 원, 기타 1,730만 원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귀농·귀촌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주거비용의 차이에 기인함. 30대의 주거비용은 2,640만 원, 40대의 경우 5,130만 원, 50대의 경우 7,360만 원, 60대의 경우 9,770만 원임.

【 귀농·귀촌 초기 비용 】

단위: 백만 원

		주거비용	영농기반 조성비용	생활비	기타	총액
전체		73.5	68.2	18.3	17.3	166.1
연령별	30대 이하	26.4	30.2	6.5	2.4	73.3
	40대	51.3	56.6	19.7	18.5	135
	50대	73.6	73.2	21.3	18.4	172
	60대 이상	97.7	59	11.1	16	174

주: 각 지출 항목의 합이 총액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 수용 여부 판단 시 각 항목의 합이 총액을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차이가 경미한 경우 초기 비용 산출에 포함하였기 때문임.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 설문에 응답한 귀농·귀촌자의 경제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전업농이 79명으로 29.9%, 겸업농이 124명으로 47%, 농업 외 경제활동 종사자가 26명으로 9.9%, 무직/기타가 35명으로 13.3%에 해당함. 전업농의 평균 영농규모는 3,595평이

며, 연간 농업 소득은 3,240만 원으로 나타남. 겸업농가의 경우, 영농규모는 2,152 평이었으며, 연간 농업소득은 12.6백만 원이었고, 농업 외 수익은 26.1백만 원으로, 겸업농가의 총 소득은 전업농의 소득을 상회하고 있음.

【 귀농·귀촌자의 경제 활동 및 소득 】

	영농 규모(평)	연간 소득(백만 원)	
전업농(n=37)	3,595	32.4	
겸업(n=36)	2,152	12.6	38.7
	영농 외 활동	26.1	
농업 외 경제활동(n=12)		25.3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 통계에서 나타나는 귀농·귀촌인 경제활동(통계청이 발표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비율은 2013년 33.7% : 66.3%)과는 달리 설문조사에서는 귀농·귀촌인 중 90% 이상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특히 77% 이상은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금에 의지하면서 은퇴 후의 조용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순수 귀촌인'의 비율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귀농 농가와 전체 농가의 농업환경 비교 】

	전체 농가 (2012)	귀농 농가		
		2011	2012	2013
가구원수(명)	2.53	1.73	1.75	1.72
경지면적(ha)	1.50	-	0.50	0.46
평균연령(세)	65.4	52.4	52.8	53.1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및 귀농귀촌인 통계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 귀농·귀촌인들은 향후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가 50.7%이고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37.3%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영농 규모 확대 의지가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모 확대 의지가 낮아지고 있음.

【 영농 규모 확대 의사 】

단위: 명, (%)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규모 확대	114 (50.7)	7 (63.6)	33 (61.1)	58 (55.8)	16 (30.2)
현상 유지	84 (37.3)	0 (0)	15 (27.8)	37 (35.6)	31 (58.5)
규모 축소	14 (6.2)	1 (9.1)	2 (3.7)	3 (2.9)	6 (11.3)
조만간 농업 중단	2 (0.9)	0 (0)	1 (1.9)	1 (1.0)	0 (0)
기타	11 (4.9)	3 (27.3)	3 (5.6)	5 (4.8)	0 (0)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 귀농·귀촌 연차별로는 2년차에서 영농 규모 확대 의지가 가장 높고, 년차가 높아질수록 확대 의지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음. 영농규모별로는 1,000 평에서 3,000 평 미만의 영농 규모를 가진 귀농·귀촌가구에서 영농 규모 확대 의사가 가장 높았음.
- 농업 규모 확대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판로 확대 어려움(27.5%명), 비싼 농지가격(18.0%명), 비싼 농기계 가격(16.0%명), 농지 확보의 어려움(16.0%), 영농 기계 설치 부담(4.0%), 농업인력 부족(2.0%), 농업 기술 습득 어려움(2.0%) 등을 꼽았음.

2.5. 귀농·귀촌인의 사회 활동

- 설문에 응한 귀농·귀촌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임. 전체적으로 마을회의 및 행사의 참여 정도가 높지만, 시군 단위 귀농귀촌협의회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귀농·귀촌인 모임의 참여정도가 높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낮은 가운데, 30대와 40대는 마을회의 및 행사나 교육수료생, 동호회 등이 포함된 기타모임의 참여 정도가 높았음.

【 귀농·귀촌자의 사회활동 참여도 】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마을회의 및 행사	3.48	2.92	3.52	3.40	3.64
경제모임(영농조합, 작목반, 협동조합 등)	2.99	2.50	3.03	2.86	3.24
귀농·귀촌인모임(시/군 단위)	2.95	2.45	3.05	3.03	2.77
귀농·귀촌인모임(읍/면/마을 단위)	2.76	2.45	2.74	2.83	2.67
귀농·귀촌인모임(전국 단위)	2.21	1.64	2.25	2.21	2.34
시/군 단위 지역주민 모임	3.01	2.80	3.23	2.94	2.92
기타모임(교육수료생 모임, 농민회, 농업대학원 동호회 등)	3.07	3.20	3.39	3.01	2.86

주: 각 항목의 값은 리커드 척도 상의 수치임. 응답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1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 5는 자주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함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마을주민들과 가장 활발히 어울리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의 텃세가 심한 편이라고 느끼는 경우와 마을 주민과의 거리를 두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온라인 조사에서는 지역조사 보다 텃세를 느끼거나, 마을 주민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 주민과의 관계 】

문항	점수
마을주민들과 친하게 지냄	3.88
귀농귀촌인과 친하게 지냄	3.69
차후 지역리더가 되고자 희망함	2.85
지역주민 텃세가 심한 편임	2.77
가능한 마을주민과 거리를 둬	2.03

주: 각 항목의 값은 리커드 척도 상의 수치임. 응답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1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 5는 매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함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2.6. 귀농·귀촌인의 애로사항

- 귀농·귀촌자의 애로사항을 경제적인 측면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수입의 감소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생활의 불편(18.2%), 문화/여가 생활 미흡(15.4%), 기존 주민과 삶의 방식 차이(11.7%), 장래에 대한 불안(9.1%), 주거 여건 열악(7.3%) 등을 꼽았음. 연령대가 낮을수록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생활에 대한 불편이나, 미흡한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음.

【 생활하면서 힘든 부분 】

단위: 명, (%)

항목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수입의 감소	142 (28.7)	9 (39.1)	39 (32.2)	65 (28.3)	29 (24.6)
생활불편(식품/생필품 구매 어려움 및 의료서비스 열악)	90 (18.2)	1 (4.3)	16 (13.2)	40 (17.4)	26 (22.0)
문화/여가 생활 미흡	76 (15.4)	2 (8.7)	13 (10.7)	32 (13.9)	25 (21.2)
텃세 등 기존 주민과 삶의 방식 차이	58 (11.7)	1 (4.3)	18 (14.9)	34 (14.8)	15 (12.7)
장래에 대한 불안	45 (9.1)	5 (21.7)	10 (8.3)	20 (8.7)	10 (8.5)
주거 여건 열악	36 (7.3)	3 (13.0)	8 (6.6)	18 (7.8)	7 (5.9)
가족 등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과의 단절	20 (4.0)	0 (0)	4 (3.3)	11 (4.8)	5 (4.2)
자녀 교육 어려움	17 (3.4)	1 (4.3)	11 (9.1)	4 (1.7)	0 (0)
기타	10 (2.0)	1 (4.3)	2 (1.7)	6 (2.6)	1 (0.8)
계	494	23	121	230	118

주: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2가지 부문에 대하여 복수응답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 기타 귀농·귀촌인은 다음의 표와 같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나타내고 있음.

【 귀농·귀촌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 】

구분	애로 및 건의 사항
경제 활동	- 노동력 확보, 직거래(판로) 지원, 실질적 체험 필요 - 젊은 사람이 살기에 농업 이외의 일자리 및 교통, 의료서비스 부족 - 지가상승 지역주민과 불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귀농·귀촌에 반대 -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림 지역이라 하더라도 제조업 허가를 하여 2차 생산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안정적인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 유지 - 개인의 재능과 전 직장 전문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 귀촌인은 밭이나 논이 300평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불합리 - 유흥지를 사고자 하나 소유권이 복잡하여 살수 없음
지역 활동	- 지역주민 텃새에 대한 지자체의 개선 노력 필요 - 지자체 공무원의 귀농 귀촌자에 대한 협조 부족 - 농업기술센터 이외에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없음 - 주위 환경은 좋으나 병의원 이용 문화적인 이용 등 불편 - 지역에 전담하여 도와줄 멘토 등이 필요 - 지역정보와 귀촌지 주민들과 원만한 화합을 지원하는 체계 부족함. 현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 - 현재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인을 끌어들이려 주민수를 늘리는데 급급함 -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귀농귀촌인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정책 건의	- 귀농정착 자금의 무이자 전환 및 50%는 보조전환 -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지만 받기가 쉽지 않음 -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음 - 주택마련과 관련한 현실적인 지원/또는 도움 - 이장이나 또래 등 지역주민과의 멘토 연결/인큐베이팅 지원자 위주의 체험 교육이 많이 필요 - 거주할 빈집 등을 모니터링해서 귀농, 귀촌 상담 시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절실 - 교육기관은 많으나 꼭 필요한 교육이 아쉬움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 한편 귀농·귀촌의 60.5%가 향후 현 거주지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33.1%가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지역조사와 온라인 조사 결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온라인 조사에서는 48.2%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조사 특성상 비판 성향이 강한 응답자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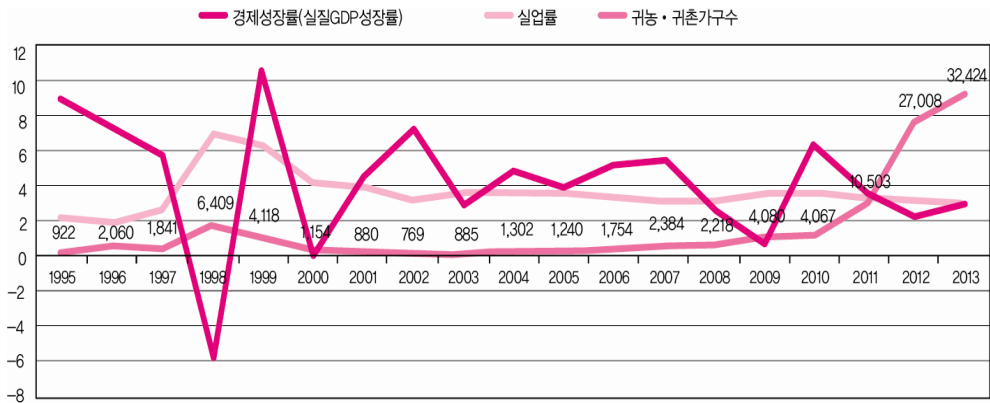
3. 귀농·귀촌 요인

- 귀농·귀촌은 인구이동현상이기 때문에 인구 이동요인과 관련이여 귀농·귀촌 요인을 설명할 수 있음. 대표적인 이론으로 구조 요인과 압출-흡입 모형이 있는데, 이에 기초할 때 귀농·귀촌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인구 사회 구조 속에서 큰 틀이 결정되고, 여기에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입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하며, 그것이 개인의 행태와 연령별 특성에 기초하는 개인의사결정요인이 결합한 것이라 할 있음.

3.1. 구조 요인

- 귀농·귀촌인 수는 경제상황과 연관이여 있음. IMF 경제 위기 시 경제성장률이 -6.9%로 하락할 때 귀농 인구는 6,409명으로 증가하였다가 1999년과 2000년에 경제 성장률이 8%대로 회복됨에 따라 귀농 가구 수는 2001년에 880가구로 감소하였음. 또한 2000년 대 초에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었다가 2006년 5.2%를 전환점으로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 그에 반비례하여 귀농·귀촌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실업률의 경우 IMF 경제 위기 시 실업률 상승과 귀농·귀촌 가구와의 역비례관계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안정되어 있음을 볼 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음.

【 귀농·귀촌인 수와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



자료: 박시현·최용욱(2014)

-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 20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시점으로, 2011년부터 그 중 약 9,000명은 재취업을 하지 않고 실직자로 남을 것으로 예측됨(정호성 등 2010). 베이비부머의 취업자 감소분은 매년 급속도로 증대하여 2012년에는 18,000명, 2013년에는 40,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정호성 등 2010). 이러한 수치를 50대 귀농·귀촌자 가구와 대비하면 2011년부터 귀농·귀촌자수가 급증한 이유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임.

【 귀농·귀촌 가구 수와 베이비부머 취업자의 감소 】

연도	귀농·귀촌 가구 (50대 귀농·귀촌 가구)	베이비부머 세대 취업자 감소분	비고
2010	4,067(1,854)	-	베이비부머 정년 연령 도달*
2011	10,503(3,764)	9,000명	추정치
2012	27,008(8,299)	18,000명	추정치
2013	32,424(10,420)	40,000명	추정치

*: 1955년생이 2010년에 기업의 일반적 정년연령인 만 55세에 도달

자료: 귀농·귀촌 가구는 통계청 발표 자료. 단 2010년과 2011년에는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하지 않음. 베이비부머취업자 감소분은 정호성 등(2010) 추정. 베이비부머 세대 취업자가 은퇴연령에 진입한 이후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55세, 60세, 65세의 경우 각각 6.6%, 13.9%, 25.3%로 예상하여 추정.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 청년층의 귀농·귀촌 현상도 인구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음. 청년층의 귀농·귀촌은 이른바 에코 세대의 인구 구조와 그들의 행태와 관련됨(에코세대는 1979년부터 1992년 출생자로 베이비부머가 낳은 자녀로 정의함). 이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는 청년실업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고용 기회의 감소와 도시 생활비의 증가이며, 이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에 취업하는 귀촌 형태이거나, 가업승계형 귀농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3.2. 도시의 압출요인

- 사례조사에서 도시 압출 요인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통 혼잡이나 밀집 등 열악한 도시 환경에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과도한 생활비 및 거주비, 피상적인 인간관계 등으로 나타남.
-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시의 압출요인 가운데 소득의 감소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즉, 귀농·귀촌인 심층인터뷰 등에서 나타나는 귀농·귀촌 요인으로 소득과 생활비 등 경제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통계청(2011)의 사회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도시거주의 경우 평균 238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농어촌거주자는 188만원으로 농촌에서의 생활비가 도시에서의 생활비보다 27%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 연령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은퇴 후 거주지역과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농촌의 생활비는 최대 40%가량 줄일 수 있음(공도윤 2014). 사례조사에 의하면, 도시의 압출요인은 농촌의 흡입요인 보다 귀농·귀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3.3. 농촌의 흡입요인

- 농촌의 흡입요인은 생태가치에서 비롯되는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구별됨. 생태가치 요인은 안전 먹거리의 자가 생산, 생태적인 삶의 추구, 건강, 수려한

풍광 등이 해당되며, 경제적 요인은 농업의 가능성, 농업 관련 사업 기회 증대, 사회적 일자리 기회 증대, 저렴한 생활비 등임.

-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귀농·귀촌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촌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도시 생활이 싫어서’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영농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농촌의 흡인요인이 도시의 압출요인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농촌의 흡입요인 가운데는 도시의 압출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구조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예를 들어, 실태조사에서는 ‘농촌생활이 좋아서’ 귀농·귀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50대와 60대 이후의 응답자가 더 많으며, 이들은 또한 ‘경제생활이 어려워’ 귀농·귀촌했다는 응답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편임. 정년 및 조기 은퇴, 불황으로 인한 도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혼합되어 ‘농촌이 좋아서’ 귀농·귀촌했다는 응답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농촌의 흡입요인은 귀농·귀촌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보다는 어디로 귀농·귀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귀농·귀촌지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선호하는 자연 여건’이 5점 척도에서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 특히 귀농인(3.85)보다는 귀촌인(4.07)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3.4. 정책 요인

- 정책 요인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지만 한 개인이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함. 정책요인 가운데 지자체의 노력은 귀농·귀촌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 영향의 정도는 낮은 편임.
- 귀농·귀촌 정책 노력이 보다 세밀해지고 구체적인 때 귀농·귀촌인의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고창의 경우 귀농·귀촌 예비자에게 매 달 10만원의 월세로 2~3년 간 임시거처에서 머물 수 있는 등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귀농·귀촌자의 증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3.5. 개인의사 결정 요인

- 개인의사 결정 요인은 귀농·귀촌인 개인의 속성과 관련됨. 귀농·귀촌인들은 외부 여건을 자신의 개인 속성에 비추어 판단하고 귀농·귀촌을 결정함. 개인의사 결정 요인은 크게 개인의 행태와 연령으로 나뉘 살펴볼 수 있음.
 - 행태요인은 개인의 성장 배경, 삶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연령과 관련되어 있음. 성장기를 농촌에서 보낸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귀농·귀촌에 대한 태도(긍정적 혹은 부정적)가 달라 질 수 있음. 물질적인 풍요 보다는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귀농·귀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함. 생태적인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귀농·귀촌하는 경우도 있음.
 -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이 같다 해도 30대의 청년층의 반응과 60대의 노년층이 반응은 다름. 60대 이후의 은퇴 고령층은 도시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자연 환경이 좋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농촌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반면 40대 이하의 젊은 귀농·귀촌인은 귀농·귀촌 비용이 적으면서 농업여건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4. 귀농·귀촌에 의한 농촌 사회·경제 변화

4.1. 농촌 인구의 변화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0년을 기점으로, 동부에서 읍면부로 전입하는 인구(향촌이도)가 읍면부에서 동부로 전입하는 인구(향촌이도)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지역구분별 향촌·향도 인구이동 추이 】

단위: 명, (%)

구분		동↔ 읍면	동↔ 수도권 읍부	동↔ 수도권 면부	동↔ 광역시 주변읍부	동↔ 광역시 주변면부	동↔ 시 읍부	동↔ 시 면부	동↔ 군 읍부	동↔ 군 면부
2005	향촌	924,190 (10.5%)	206,495 (2.3%)	135,407 (1.5%)	79,350 (0.9%)	109,903 (1.2%)	60,527 (0.7%)	106,494 (1.2%)	95,300 (1.1%)	130,714 (1.5%)
	향도	924,301 (10.5%)	155,681 (1.8%)	124,944 (1.4%)	88,189 (1%)	106,801 (1.2%)	61,636 (0.7%)	120,002 (1.4%)	117,125 (1.3%)	149,923 (1.7%)
	향촌이도	-111	50,814	10,463	-8,839	3,102	-1,109	-13,508	-21,825	-19,209
2010	향촌	926,277 (11.3%)	221,475 (2.7%)	120,868 (1.5%)	90,114 (1.1%)	105,862 (1.3%)	57,964 (0.7%)	123,301 (1.5%)	81,744 (1%)	124,949 (1.5%)
	향도	830,034 (9.4%)	147,425 (1.7%)	110,984 (1.3%)	82,264 (0.9%)	94,186 (1.1%)	60,874 (0.7%)	118,279 (1.4%)	88,374 (1.1%)	127,648 (1.6%)
	향촌이도	96,243	74,050	9,884	7,850	11,676	-2,910	5,022	-6,630	-2,699
2011	향촌	872,032 (10.7%)	175,849 (2.2%)	120,352 (1.5%)	84,064 (1%)	103,929 (1.3%)	59,242 (0.7%)	123,503 (1.5%)	83,623 (1%)	121,470 (1.5%)
	향도	803,017 (9.1%)	144,513 (1.6%)	105,231 (1.2%)	81,343 (0.9%)	91,150 (1%)	59,609 (0.7%)	117,943 (1.5%)	87,365 (1.1%)	115,863 (1.4%)
	향촌이도	69,015	31,336	15,121	2,721	12,779	-367	5,560	-3,742	5,607
2012	향촌	795,618 (10.6%)	143,237 (1.9%)	106,902 (1.4%)	78,512 (1%)	89,139 (1.2%)	54,226 (0.7%)	110,758 (1.5%)	80,961 (1.1%)	113,116 (1.5%)
	향도	765,772 (8.7%)	130,692 (1.5%)	99,943 (1.1%)	73,367 (0.8%)	80,829 (0.9%)	57,607 (0.8%)	110,395 (1.5%)	83,045 (1.1%)	111,643 (1.5%)
	향촌이도	29,846	12,545	6,959	5,145	8,310	-3,381	363	-2,084	1,473
2013	향촌	790,992 (10.7%)	135,064 (1.8%)	108,895 (1.5%)	81,864 (1.1%)	102,147 (1.4%)	54,563 (0.7%)	113,865 (1.5%)	83,586 (1.1%)	111,008 (1.5%)
		726,610 (9.8%)	128,738 (1.7%)	100,179 (1.4%)	75,727 (1.0%)	80,297 (1.1%)	55,485 (0.7%)	104,346 (1.4%)	79,615 (1.1%)	102,223 (1.4%)
	향도	726,610 (9.8%)	128,738 (1.7%)	100,179 (1.4%)	75,727 (1.0%)	80,297 (1.1%)	55,485 (0.7%)	104,346 (1.4%)	79,615 (1.1%)	102,223 (1.4%)
		향촌이도	64,382	6,326	8,716	6,137	21,850	-922	9,519	3,971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 전통적인 농촌이라 할 수 있는 일반 군부 면지역에서 향촌이도 인구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향촌이도의 인구이동은 귀농·귀촌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동부에서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군의 면부로의 인구 이동이 귀농·귀촌의 주 연령대인 5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귀농·귀촌이 많은 상위 시군은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에 영향을 받은 경기, 충북, 강원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경기, 충북,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에서 귀농·귀촌과 지역의 인구 증대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귀촌 가구가 많은 상위 지역의 사회적 인구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 2개 군인 고창과 완주에서는 지역의 전체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음.

4.2. 지역 농업의 변화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의하면 전체 농업인구 가운데 귀농·귀촌자의 비율은 2000년 1.4%에서 2010년 3.2%, 2013년 9.0%(국회예산정책처 2014)로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고창군과 같이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전체 가구에서 귀농·귀촌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임. 전체 농가에서 귀농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더 높음.

【 고창군 귀농·귀촌가구와 전체 가구 비교(2013년) 】

구 분	가구수	40대이하 비율(50대이하)
전체 가구	28,412(100.0%)	48.7(65.1)
귀농·귀촌가구('07-'13)	2,743(9.7%)	56.4(81.9)
전체 농가 수	9,688(100.0%)	34.5(52.6)
귀농 가구 수('07-'13)	1,633(16.9 %)	

자료: 고창군 내부 자료 2014, 고창군 2013 통계연보, 안행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 귀농·귀촌은 농업인구 고령화를 완화시킴. 기존 농가의 평균연령은 65.4세인데 비해 귀농 농가는 53.1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임. 특히 농업이 발달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층 귀농·귀촌인이 많아 농업경영자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데 기여함. 위 표에서 고창 전체 가구에서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8.7%이고, 농업인 가운데 40대 이하가 34.5%인데 반해, 귀농·귀촌자의 40대 이하는 56.4%에 달함.
- 귀농·귀촌인이 규모화된 전업농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노동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과수·특작 지대에서는 귀농인이 지역농업의 후계인력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상주시 전체 가구 수에서 귀농·귀촌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반농촌지역은 2.4%인데 반해 중산간 지역은 7.9%로 귀농·귀촌인들이 일반 농촌지역보다 중산간 지역에 많이 몰리고 있음을 보여 줌. 중산간지역 귀농·귀촌인들은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 과수재배 비율이 높으며 40대 이하의 연령층이 높음.

【 상주시 지역별 귀농·귀촌인 특징(2012~2013년) 】

구 분*	전체가구	귀농귀촌 가구(%)**	주요 작목 및 분야***	연령대 비율
일반 농촌 지역	18,762	457 (2.4%)	경종(35.9%) 기타(38.8%) 과수(17.5%)	40대 이하: 37.2% 50~60대: 56.7% 70대 이상: 6.1%
산간 지역	5,811	458 (7.9%)	기타(45.7%) 과수(42.7%) 경종(10.5%)	40대 이하: 45.5% 50~60대: 46.8% 70대 이상: 7.9%

주 1) 상주시 귀농·귀촌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산간지로 구분한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일반 농촌 지역(동 지역 제외)으로 분류

2) 귀농귀촌가구(%)는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기타는 작목재배를 하지 않은 귀촌인이 주로 해당됨

자료: 상주시 내부 자료(2014),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 귀농·귀촌인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리더와 변화를 이끌어 갈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줌. 젊은 귀농·귀촌인들은 기존의 농가 경영주보다 새로운 농법을 시도하는데 거부감이 덜 하며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린 마케팅 노력을 활

발하게 전개하는 편임. 이들은 지역 내 귀농·귀촌인 모임 등을 통해 활발한 네트워킹 활동을 전개하고 농업기술교육에도 열심히 참가하는 편임.

- 귀농·귀촌인에 의한 농지 수요는 농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래 표는 사례 지역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당시와 현재의 농지가격을 비교한 것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5년 전과 비교해서 농지가격은 적게는 30% 많게는 150% 상승함.

【 귀농·귀촌 당시와 현재의 농지 가격 비교 】

지역	비교시점	2014년	비고
서천(n=10)	6만8천원	9만9천원	설문조사 평균치
고창(n=14)	3만7천원	5만1천원	
순창(n=12)	4만5천원	5만1천원	
강진(n=13)	2만8천원	3만7천원	
상주(n=8)	3만5천원	7만4천원	
영천	2010년 10만원	20만원	도로변 포도과수원
함양	2011년 4만원	6만원	논(지리산주변)
서귀포	2011년 10만원	25만원	중산간 감귤 과수원

자료: 서천, 고창, 순창, 강진, 상주는 설문조사 결과 평균치 활용. 영천, 함양, 서귀포는 면접 조사치임. 박시현·최용욱(2014) 재인용

- 농지가격 상승은 경제 기반이 열악한 귀농 희망자들의 귀농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예를 들어, 영천시와 같이 농지 가격이 평당 2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에서는 귀농·귀촌 현상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또한 농지 가격 상승은 귀농·귀촌인의 농지규모 확대를 어렵게 함. 농지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농지 가격이 저렴한 전남 남부지역으로의 귀농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수도권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한 형태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4.3. 지역 경제 변화

- 귀농·귀촌 비용은 초기 생활비를 포함해서 평균 2억2천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통계청 조사를 재분석하여, 귀농의 실제 초기투자비는 농지구입 6602만원, 주택구입 4071만원, 시설·농기계구입 4130만원, 기타사업 1970만원으로 최소 1억 6233 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함(공도윤 2014). 최근에는 농지가격과 건축비용 상승으로 귀농·귀촌하가 위해서는 약 2억-3억 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 귀농·귀촌인들이 초기에 지출하는 자금의 일부는 도시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 내에 순환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됨. 특히 귀농·귀촌인의 주택신축은 지역의 건설경기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
-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도 기여함. 동시에 농촌의 일손 부족은 귀농·귀촌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함. 농업 경영자와 귀농·귀촌인 간 상생관계가 형성되는 것임.
- 귀농·귀촌인들은 문화소비에 대한 욕구가 기존 주민보다 높은 편임. 이들은 기존 주민에 비해 보다 활발한 교류 활동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의 소비 행위는 지역의 서비스 산업이나 상업을 촉진함.
- 기타 귀농·귀촌인의 유입은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지방세 중대로 인한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기준 재정수요액 중 인구가 가장 중요한 측정항목이기 때문임.

4.4. 지역 사회 변화

- 귀농·귀촌은 농촌사회를 혼주화된 열린 사회로 바꾸는데 기여할 것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거주와 그들이 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 이로 인한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는 농촌 사회를 보다 유연하며 열린 사회로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음.

- 귀농·귀촌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획력과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리더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기존 마을 공동체의 작동원리는 보다 기능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음.
- 귀농·귀촌인이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조직을 체계화 시킨 마을도 대두하고 있음.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마을은 전통적인 조직형태의 마을회를 조합방식으로 바꾸어 귀농·귀촌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례를 보여줌.
- 농촌에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등 귀농·귀촌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혹은 그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 조직이 탄생하고 있음. 이들 조직을 통해서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협업이 강화되고 있음.
- 지역발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인이 가지는 기획력, 정보화 능력, 조직력, 외부와의 교류 능력은 지방 행정에도 도움이 됨. 특히 마을 사업과 같은 지역단위 공동사업 추진의 파트너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해짐.

5. 제언

-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이 발표한 한국경제전망은 공통적으로 성장률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음. 귀농·귀촌이 경제성장률과는 반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귀농·귀촌 수요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 특히 민간소비 지출의 감소는 귀농·귀촌자의 약 1/2을 구성하는 자영업자의 귀농·귀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음.
- 베이비부머는 이전세대에 비해 전체 취업자의 23.4%인 170만 명(2013년 기준)이 상용근로자로서, 베이비부머가 60세에 도달하는 2015년부터 상용근로자 비율이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정호성 등 2010). 직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 모두가

귀농·귀촌하지는 않겠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잠재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포스트 부머 세대(1964-1978년생)와 에코세대에서도 귀농·귀촌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포스트 부머 세대들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자로서 직장에서의 조기 은퇴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경향이 높은 편임. 청년실업문제로 대표되는 에코세대의 경제 여건 역시 귀농·귀촌 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귀농·귀촌 수요 증대가 예견되는 상황과 달리 농촌에서의 귀농·귀촌 수용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귀농·귀촌인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의 지가 상승과 주거 마련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지가 상승이 귀농·귀촌의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귀농·귀촌 초기 비용으로는 166.1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귀농·귀촌 년차에 따라 귀농·귀촌 비용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귀농·귀촌 비용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귀농·귀촌 인원의 수용력은 농업의 장래 전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면 농업 소득에 의존하는 귀농·귀촌 가구의 수입구조는 점차 악화되고 있음. 또한 귀농·귀촌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정된 농업 자원을 다수의 귀농·귀촌인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 사회의 거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귀농·귀촌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농촌 사정으로 인한 귀농·귀촌 비용의 증가와 농업의 장래 불확실성은 귀농·귀촌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귀농·귀촌의 정책 방향이 귀농·귀촌 촉진 보다는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시사함.
- 향후 귀농·귀촌 정책 기조로서 청장년층 귀농·귀촌정책은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 구조조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반면, 50대 이후 귀농·귀촌인은 국토의 분산 정주라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청장년 귀농·귀촌인 지원 정책 내실화는 젊은 층 귀농인이 일정 기간(3~5년) 경제적 부담 없이 농업 연수 및 정착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

로서 현행 선도농가실습지원과 농산업인턴지원 정책과 기본 틀은 유사하지만 시행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임.

- 초기 귀농·귀촌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며,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귀농·귀촌 경험을 축적하는 것임. 귀농·귀촌인이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농촌에 산재하는 빈집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관련자에게 빈집정비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6. 참고 문헌

- 공도윤. 2014 “은퇴 후 귀농귀촌에 따른 생활비절감효과”.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 박시현, 최용욱. 2011.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호성 등. 2010.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통계청. 2011. “2011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1. 12. 14.)